

석독구결에 나타난 시간 표현 문법 형태 연구* **

—구역인왕경을 대상으로

하정수***

|| 차례 ||

1. 서론
2. 구역인왕경의 석독구결
 - 2.1. 인왕경소와의 관련성
 - 2.2. ‘方ヒ’과 ‘方ヒ’, ‘ヒヒ’의 해독
3. 시간 표현의 문법 형태
 - 3.1. ‘-ㅅ-’와 시간 표현
 - 3.2. ‘-ㅈ-’와 시간 표현
4.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은 “구역인왕경상(舊譯仁王經上)”에 기입된 석독구결을 판독하여 그 석독구결로 표상된 당시 언어 표현의 시간 표현 문법 형태를 분석하여 그 형태의 문법 기능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자토석독구결 자료인 “구역인왕경”의 경문을 원측이 찬한 인왕경소 및 제조본 고려대장경에 수록된 구역인왕경의 경문과 교감하였다. 그 결과 “구역인왕경”의 경문은 고려대장경 판본보다는 원측의 인왕경소 경문에 더 가까웠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에 따라 “구역인왕경”의 석독구결을 해독하는 데 있어 원측의 인왕경소를 활용하였다. 실제로 인왕경소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역인왕경”에 기입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4S1A5B5A01015976)

** 이 논문은 구결학회 제48회 전국학술대회(2014년 8월 20일)에서 “舊譯仁王經上” 釋讀口訣의 解讀에 관한 管見’으로 발표한 내용을 대폭 수정하여 2장으로 하고 석독구결에 나타난 시간 표현 내용을 3장에 추가하여 작성하였다.

*** 동국대학교 강사 hazngs@daum.net

된 석독구결 해독에서 ‘方^ㄷ’과 ‘方^ㅍ’ 서로 다른 기능을 가졌음을 논증하였다. 또한 구결자 ‘ㄴ’가 사동의 의미를 갖는 ‘히어’로 전사할 수 있었다. 둘째 “구역인왕경”에 기입된 석독구결에 나타난 시간 표현 문법 형태를 분석하여 이들을 ‘*’, ‘ㄷ’, ‘ㅍ’, ‘ㅊ’로 제시하였다. 이 문법 형태로 분석된 구결자는 그 문법 기능이 중세국어의 ‘-거-’, ‘-느-’, ‘-노-’로 표상되는 형태와 관련되어 있음을 그 통사 구조와 구문의 해석을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문법 형태 ‘*’는 화자 또는 주어가 ‘미래’에 사건을 인식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시간 표현 기능을 나타냈다. 문법 형태 ‘ㄷ’, ‘ㅍ’, ‘ㅊ’는 기본형, 이형태, 통합형의 형태가 표상된 구결자로 파악하고 이들은 공통적으로 화자 또는 주어가 ‘현재’의 사건을 인식하는 시간 표현의 기능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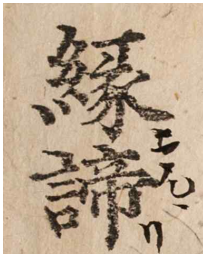
주제어: 석독구결, 구역인왕경, 인왕경소, 사동, 시간 표현, 문법 형태, 시제, 미래 지각, 현재 지각, -*(-거-), -ㄷ(-느-)

1. 서론

본고의 목적은 자토석독구결 자료인 5장의 낱장으로 된 “仁王護國般若波羅蜜經 卷上”(이하 “구역인왕경”)에 기입된 석독구결에 나타난 문법 형태 중에서 시간 표현을 표상하는 문법 형태를 찾아 그 기능을 밝히는 데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료에 대한 엄격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자료에 기입된 석독구결의 구결자 검토는 정밀하고 정교한 자형 판독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2장은 구결자의 자형 판독을 위해 원문인 경전의 내용과 번역 양상을 함께 고려하여 자형을 확정한다. 특히 “구역인왕경”은 자료 자체의 성격상 이러한 기초 작업이 이루어진 이후에 여기에 기입된 석독구결의 시간 표현 문법 형태를 분석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3장에서는 2장의 작업 결과를 반영하고 이전 연구에서 집성된 석독구결 입력문과 주해 해석문을 이용하여 분석한 구결자 중 ‘*’, ‘ㄷ’, ‘ㅍ’, ‘ㅊ’가 시간 표현의 문법 형태임을 파악할 수 있다. 이들 구결자가 중세국어시기에 ‘-거-’, ‘-느-’, ‘-누-’, ‘-노-’와 어떠한 공통점을 가지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결과적으로 이 문법 형태 ‘*’, ‘ㄷ’, ‘ㅍ’, ‘ㅊ’의 기능이 각각 화자가 ‘미래’와 ‘현재’의 사건을 인식하는 것을 나타내는 문법 기능을 표현하는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2. 구역인왕경의 석독구결

보물 제1572호인 서산 문수사 금동여래좌상 복장유물 일괄 중 지류에 포함되어 있는 “구역인왕경”은 각 낱장의 크기가 각각 30.6 cm×57.4 cm 내외인 5장의 낙장본이다.¹⁾ 발견 당시 같이 있었던 妙法蓮華經卷第七(절첩본 10장 낙장본)과 함께 지정 6년(至正六年, 1346년)의 연기를 지닌 발원문으로 이 문헌의 복장 시기를 추정할 수 있고, 자료에 기입된 석독구결의 하한을 추정할 수 있다(강인구, 1975). 이 자료는 인출 시기가 13세기로 추정되는 목판본으로 판식은 1면 25행, 1행 17자의 사간본(寺刊本) 양식이다.²⁾ 재조 고려대장경의 “구역인왕경”이 23행 14자 양식이고, 재조 고려대장경의 신역인왕경도 23행 14자이므로 이 자료는 고려대장경 판본 양식과는 상이하다. 정암, 남권희, 박성실 외(2004:25)에서는 선풍장(旋風裝)으로 설명되는데 실제 모



구인3:19
사진 1

양을 살펴보면 각각의 낱장이 M자 모양으로 접힌 흔적이 있고, 안으로 접힌 가운데 부분이 밖으로 접힌 양쪽 끝에 비해 짧다. 좌로부터 7행, 6행, 6행마다 접힌 자국이 있어 전체가 넷으로 구획된다.³⁾ 왼쪽 단변 내의 좌측 여백에 경명과 장차가 있고 그 옆으로 오른쪽보다 2배 정도 넓은 여백이 있다. 실물의 뒷면을 보면 M자 모양의 윗부분은 강하게 접힌 흔적이 있고, 가운데 아랫부분은 약하게 접힌 흔적이 남아 있다.

자료에 기입된 구결 중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 왼쪽

- 1) 자료 조사와 사진 촬영을 허락해 주신 수덕사 근역성보관장 정암스님과 자료 열람에 도움을 주신 김지혜 학예연구사 선생님께 큰 고마움을 표한다.
- 2) 정암, 남권희, 박성실 외(2004: 25)의 도록에 있는 설명을 참조하였다.
- 3) 접힌 자국에 구결이 기입된 형태를 볼 때 접힌 부분을 피하여 기입되어 있는 점과 한 획이 접힌 곳을 경계로 단절된 곳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접힌 이후에 구결을 기입한 것으로 추측된다.

사진의 ‘緣’자의 오른쪽에 기입된 ‘:ノㄴ·’을 살펴보자. 먼저 ‘ㄴ·’을 기입하였다가 그 위에 ‘ㄴ’ 위에 ‘:’로 고쳐 쓰고 역독점 ‘·’ 위에 ‘ノ’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다. 이 구절은 거꾸로 읽는 것을 여러 번 하는 곳이다. 특히 이 부분은 행을 거슬러 앞의 행으로 돌아가서 읽어야 하는 상당히 긴 곳이다. 당시 구절 기입자는 이 부분에서 문장이 끝나지 않고 연결되었다고 생각하였다가 역독을 한 후에 구절이 끝나자 이렇게 고쳐 쓴 것이 아닌가 한다. 이 점에서 우리는 구절자 ‘:ノㄴ’과 ‘ㄴ’ 사이의 관련성과 그 문법적 기능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자료에 기입된 구절자의 검토는 이러한 점까지도 고려하여 자형 판독에서부터 정밀하고 정교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형(字形)을 확정하는 작업과 더불어 경문의 내용을 정밀하게 이해하는 것 또한 석독구결 해독에 필수적인 사항이다. 불서 해독의 지름길은 우리의 선인들이 그러했듯이 무엇보다도 백문(白文)을 읽고 나서 그것의 해독이 옳다고 생각했을 때 비로소 하나하나 목서로 토를 달았던 것을 원칙으로 하여 불서 해독에 있어 ‘ㅌ 위주의 분석’보다 ‘釋 위주의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김두찬 1998:164-165). 석독구결 해독에 있어서도 경문의 내용에 대한 정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본고에서는 “구역인왕경” 경문의 정밀한 해독을 위해 신라 스님 원측(圓測)이 찬한 인왕경소(仁王經疏)를 활용하고자 한다.

2.1. 인왕경소와의 관련성

2.1.1. 인왕경의 번역 양상

인왕경(仁王經)은 법화경(法華經), 금광명경(金光明經)과 함께 호국 삼부경으로 불리며 신라부터 고려 시대에 이르기까지 널리 읽혔다. 특히 호국(護國)과 국가 안녕을 위한 인왕백고좌회(仁王百高座會)는 인왕경에 의거한 행사로 기록에 찾을 수 있는 최초의 것은 신라 眞興王 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三國史記 列傳第四 居柒夫傳). 7세기에 중국에서 활동하였던 원측(圓測, 613~696년)이 찬한 인왕경소(仁王經疏)에⁴⁾ 따르면 ‘인왕경’에는 광본(廣本)

4) 第四翻譯時代依文正釋 即有二門 一翻譯時代 二依文正釋 言翻譯時代者 此經一部

과 약본(略本)이 있었고, 한역 인왕경은 약본에 해당하며 원측이 활동할 당시 이미 세 가지의 번역본이 있었다고 하였다. 이 셋은 모두 구역(舊譯)에 해당한다. 원측 이후의 것으로는 당(唐)의 영태(永泰) 원년(765년)에 불공(不空)이 번역한 “仁王護國般若波羅蜜多經”이 있다. 불공의 것은 앞의 구역에 대하여 신역(新譯)에 해당한다. 현재 전해지는 것은 鳩摩羅什이 번역한 “仁王護國般若波羅蜜經”의 舊譯과 不空이 번역한 “仁王護國般若波羅蜜多經”의 新譯뿐이다. 仁王經疏에 의하면 원측 당시에 세 개의 본(구역)이 있었지만 축법호가 번역한 “仁王般若經”은 처음의 것이라 다 갖추어지지 않았고 진체(眞諦)의 본은 유행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원측의 仁王經疏는 구마라집이 번역한 “仁王護國般若波羅蜜經”에 의거하였다고 하였다.⁵⁾

본고의 대상인 “구역인왕경”의 낱장 5장은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형태 서지 등에서 재조 고려대장경 판본과 차이가 있다. 또한 그 경문의 내용과 문자의 자형에 차이가 있고, 문자의 異同이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남성우·정재영, 1998). 이 장에서는 이 둘의 저본이 되는 구마라집의 인왕경에 대한 논소(論疏)인 원측의 인왕경소에 나타난 경문과 고려대장경에 수록된 경문 그리고 석독구결이 기입된 자료인 “구역인왕경”의 해당 부분을 서로 비교하고자 한다. 석독구결의 정확한 해독을 위해서는 그 경문의 의미를 세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구역인왕경”은 재조대장경 판본과 다소 차이가 있어 현재까지의 재조대장경의 번역에 의거한 단락 구분과 경문 해석은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准下經文 自有兩本 一者廣本 故下散華品云 爾時十六大國王 聞佛所說十方億偈般若波羅蜜經 散華供養 故知此經 亦有廣本 二者略本 梵本雖一 隨譯者異 乃成三本 一者 晉時秦始元年 月支國三藏法師曇摩羅密 晉云法護 翻出一卷 名仁王般若 二者 秦時弘始三年 三藏法師鳩摩羅什 秦言童壽 於常安西明閣逍遙園別館 翻出一本 名仁王護國般若波羅蜜 三者 梁時承聖三年 西天竺優禪差國 三藏法師波羅末陀 梁云真諦 於豫章寶田寺翻出一卷 名仁王般若經 疏有六卷 雖有三本 晉本創初 恐不周悉 真諦一本隱而不行 故今且依秦時一本(依費長房三寶錄三譯皆言一卷 然費學七入藏目錄即云兩卷) (한국불교전서 제1책 신라편 19a)

5) 인왕경소에 대한 해석은 백진순(2010:68-69)을 참조하였다.

2.1.2. 인왕경 경명과 품명

앞에서 기술한 仁王經疏에서 신역과 구역 인왕경의 경명에 대한 내용을 황선엽(2013:40)의 경명 논의를 참조하여 아래의 [표 1]로 정리하였다.

[표 1] 인왕경소의 경명, 역자, 번역 시대

經名	譯者	翻譯 時期	구분	비고
仁王般若經	竺法護	晉 秦始元年 265년	舊譯	최초 번역본 인왕경소에 의거함.
仁王護國般若 波羅蜜經	鳩摩羅什	秦 弘始三年 401년	舊譯	현전 제조 고려대장경
仁王般若經	眞諦	梁 承聖三年 554년	舊譯	원측 당시 유통하지 않음, 인왕경소에 의거함.
仁王護國般若 波羅蜜多經	不空	唐 永泰元年 765년	新譯	현전 제조 고려대장경

재조본 고려대장경의 관수제는 구마라집 번역의 구역이 ‘佛說仁王般若波羅蜜經卷上’으로 되어 있고, 불공 번역의 신역은 ‘大唐新翻護國仁王般若經序’ 이후에 관수제가 ‘仁王護國般若波羅蜜多經卷上’으로 되어 있다. 각각의 관심제는 구역이 ‘仁王護國經上卷’으로 판본의 왼쪽에 장차, 함차와 함께 나타나고, 신역은 ‘仁王護國般若經’으로 판본의 오른쪽에 장차 및 함차와 함께 나타난다. “구역인왕경”은 ‘舊譯仁王經上’으로 나타난다. 仁王經疏는 圓測의 말년인 694년 이전에 찬술되었다.

위에서 인왕경 품명(品名)과 관련하여 현전하는 “구역인왕경”에서 찾을 수 있는 품명은 두 개뿐이다. 상권의 4품 중에서 두 개의 품명만 확인이 가능하고 경명과 역자 등이 포함되는 권수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첫 번째 장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아래에 세 자료에서 찾을 수 있는 품명을 정리하여 [표 2]로 제시한다.

[표 2] 인왕경 품명의 비교

구분	“구역인왕경”	재조본 고려대장경 구역 판본	인왕경소의 경문 중	재조본 고려대장경 신역 판본
卷上	자료 없음	序品第一	佛說仁王護國 般若波羅蜜經 序品第一	序品第一
	仁王護國般若 波羅蜜經觀空 品第二	仁王般若波羅蜜護 國經觀空品第二	觀空品第二	仁王護國般若波羅蜜多 經觀如來品第二
	자료 없음	仁王般若波羅蜜護 國經菩薩教化品第 三	教化品第三	仁王護國般若波羅蜜多 經菩薩行品第三
	仁王護國般若 波羅蜜經二諦 品第四	仁王般若波羅蜜護 國經二諦品第四	二諦品第四	仁王護國般若波羅蜜多 經二諦品第四
卷下	자료 없음	護國品第五	護國品第五	護國品第五
	자료 없음	仁王般若波羅蜜護 國經散華品第六	散華品第六	仁王護國般若波羅蜜多 經不思議品第六
	자료 없음	仁王般若波羅蜜護 國經受持品第七	受持品第七	仁王護國般若波羅蜜多 經奉持品第七
	자료 없음	仁王般若波羅蜜護 國經囑累品第八	囑累品第八	仁王護國般若波羅蜜多 經囑累品第八

2.1.3. 경문의 교감

“구역인왕경” 다섯 장에 있는 경문을 재조대장경 경문과 인왕경소 경문 부분과 비교해 보자. 품명 2개를 포함하여 36곳에서 문자의 출입과 異同이 있다. 인왕경소의 경문은 단락이 길 경우 중간에 ‘至’를 넣어 생략하였다. 따라서 경문 전체를 비교할 수는 없다. 남성우·정재영(1998:195)에서 보고된 자형(字形)이 다른 글자인 ‘爾-尔, 華-花, 無-无, 萬-万, 彌-弥’는 교감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 세 자료를 교감(校勘)한 결과는 아래의 [표-3]과 같다.⁶⁾

6) “구역인왕경”과 재조대장경의 문자 출입의 차이는 황선엽(2013)을 참조하고, 재조대장경과 인왕경소 경문의 대조는 백진순·옴김(2010)을 참조하여 원문과 대조하였

[표 3] 교감 결과

※ ‘○’는 다른 경문의 글자가 없는 자리를 표시한 것이다. 인왕경소 부분에서 ()안에 있는 것은 ‘釋’을 참조하여 추측한 것이다. 상이한 부분의 글씨를 진하게 하였다.				
순번	“구역인왕경”		구마라집 역 제조 고려대장경	원측 인왕경소 경문
1	2장3행제8자	各各座前花上	各各坐前華上	各各座前華上
2	2장3행제12자	○有無量化佛	復有無量化佛	생략 부분
3	2장7행제10자	他方大衆及以化衆	他方大衆及○化衆	생략 부분
4	2장7행제16자	此三界中○衆	此三界中大衆	생략 부분
5	2장10행제4자	爾時十号	尔時十号	爾時十方
		釋에서 ‘言十號者’임. 方은 ‘号’의 오자, 백진순(2010: p.190, 각주 462.)		
6	2장11행제15자	大寂室三昧	大寂室三昧	大寂室三昧
		‘昧’는 ‘昧’의 오자, 백진순(2010: p.199, 각주 491.)		
7	2장12행제8자	照三界中	照三界中	照三界衆生
		인왕경소의 경문에 ‘或有本云照三界中’의 註가 있음.		
8	2장7행제11자~18행제2자	六欲諸天雨量無色花	六欲諸天雨量無色花	없음.
9	2장17행제9자	自然而生	自然○生	생략 부분
10	2장23행	般若波羅蜜	般若波羅蜜	斯作何事
		인왕경소의 오류, 백진순(2010, p.211-212, 각주 530.)		
11	3장 4행제1자	爾時波斯匿	○時波斯匿	爾時波斯匿
12	3장6행제17자	彼他方	彼他方	彼他身
		인왕경소의 오자로 보임. 釋에서 四方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13	3장12행제15자	覺寤如來	覺悟如來	覺悟如來
14	3장16행	仁王護國般若波羅蜜經	仁王般若波羅蜜護國	觀空品第二
		觀空品第二	經觀空品第二	
15	3장18행제1자	國土因緣	國土因緣	國王因緣
		인왕경소의 오자로 보임.		
16	11장12행제11자	舍生之生	舍生之類	생략 부분
17	11장15행제7자	卽於座中	卽於坐中	卽於座中
18	11장15행제12자	十恒○沙	十恒河沙	생략 부분
19	11장15행제17자	十恒○沙	十恒河沙	생략 부분
20	11장16행제5자	十恒○沙	十恒河沙	생략 부분
21	11장17행제3-6자	阿須輪王	阿須輪王	(阿修羅)
		釋에 ‘阿修羅’로 나타남, 백진순(2010, p.420, 각주 194.)		
22	11장 20행제5자	佛告諸○得道果	佛告諸○得道果	佛告諸行得道

다. 다만 인왕경소 원문 자료는 국외 소장본(日本 大谷大學 所藏本, 龍谷大學 所藏本, 平安時代寫寶壽院 所藏本)으로 사진이나 마이크로필름 등을 구하지 못해 한국 불교전서 제1책에 수록된 것과 CBETA에서 제공하는 원문을 참조하였다.

				果
		인왕경소의 '行'은 剩字임. 백진순(2010, p.422, 각주 196.)		
23	11장23행제6자	汝所解得	汝所言得	생략 부분
24	11장24행제6자	乃知斯事	乃知斯事	乃至知斯事
		'乃至'와 '至乃'의 순서가 바뀜. 釋에 '乃知斯事'로 나타남.		
25	14장3행제1자	法無佛○出世前	法無佛未出世前	(法無佛○出世前)
		인왕경소의 釋에 '言法無佛出世前等者'로 나타남.		
26	14장8행제9자	告名○續諦	告名相續諦	告名○續諦
27	14장8행제14자	相對假法一切名	相對假法一切名	相對假名一切名
		인왕경소의 '名'은 '法'의 오자로 보임.		
28	14장14행제8자	若此說此法時	若此說此法時	若此時
		인왕경소에는 '說此法'이 없음.		
29	14장17행	仁王護國般若波羅蜜經 二諦品第四	仁王般若波羅蜜護國 經二諦品第四	二諦品第四
30	14장18행제11자	第一義○中	第一義諦中	생략 부분
31	14장22행제6자	一義二義故	一義二義故	一義二義○
		인왕경소에는 '故'가 없음.		
32	14장22행제7자	○○諦聽諦聽	○○諦聽諦聽	王今諦聽諦聽
		인왕경소에는 '王今'이 더 있음.		
33	14장25행제10자	法性本無性	法性本無性	法性本無相
34	15장3행제4자	有無本自二	有無本自二	有無本是二
35	15장12행제7자	○一而無二	○一而無二	至一而無二
		인왕경소의 '至'는 오자로 보임.		
36	15장15행제6자	從於無明	從○無明	생략 부분

교감 결과 세 곳이 모두 다른 곳은 품명이다. 인왕경소는 품명 앞에 경명을 붙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왕경소의 경문은 생략된 부분이 많아 “구역인왕경”과 제조대장경이 차이를 보이는 곳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곳은 경명을 제외하고 앞의 [표 3]의 1, 11, 13, 17, 21, 25, 26의 7곳이다. 7곳 가운데 “구역인왕경”과 인왕경소의 경문이 동일한 것은 ‘座-坐’, 文字出入으로 5곳이고, 다른 것은 2개이다. 특히 문자의 출입은 “구역인왕경”과 인왕경소 경문이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구역인왕경”과 인왕경소의 경문이 서로 상이한 부분은 대체로 인왕경소의 오자나 오류로 파악되는 것들이다.

비록 다섯 장에 불과한 “구역인왕경”과 많은 부분이 생략된 인왕경소의 경문을 비교하여 얻은 결과일지라도 이는 “구역인왕경”의 해독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저본이 된 경전의 원문은 제조대장경의 저본보다는 인

왕경소의 저본이 된 경전에 더 가까웠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원측의 인왕경소에 있는 경문 내용을 참고하여 “구역인왕경”의 석독 구절을 보다 정밀하게 해독할 수 있는 도구 하나를 더 얻은 것이다.

2.1.4. 인왕경소를 활용한 석독구절 해독

“구역인왕경”의 석독구절에 대한 해독은 이 자료가 세상에 나와 연구된 지 4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몇 문제를 우리에게 남기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독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 일지라도 그것을 활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정밀한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 가. 世諦¹ 幻化² 起³ 譬⁴ 虛空⁵ 花⁶ {如⁷} 影⁸ 三⁹ 手¹⁰ 無¹¹ {如¹²} 因緣¹³ 故¹⁴ 誑¹⁵ 有¹⁶ 三¹⁷ 手¹⁸ 如¹⁹ 因²⁰ 緣²¹ 故²² 誑²³ 有²⁴ 三²⁵ 手²⁶ 如²⁷ 因²⁸ 緣²⁹ 故³⁰ 誑³¹ 有³² 三³³ 手³⁴ 如³⁵ 因³⁶ 緣³⁷ 故³⁸ 誑³⁹ 有⁴⁰ 三⁴¹ 手⁴² 如⁴³ 因⁴⁴ 緣⁴⁵ 故⁴⁶ 誑⁴⁷ 有⁴⁸ 三⁴⁹ 手⁵⁰ 如⁵¹ 因⁵² 緣⁵³ 故⁵⁴ 誑⁵⁵ 有⁵⁶ 三⁵⁷ 手⁵⁸ 如⁵⁹ 因⁶⁰ 緣⁶¹ 故⁶² 誑⁶³ 有⁶⁴ 三⁶⁵ 手⁶⁶ 如⁶⁷ 因⁶⁸ 緣⁶⁹ 故⁷⁰ 誑⁷¹ 有⁷² 三⁷³ 手⁷⁴ 如⁷⁵ 因⁷⁶ 緣⁷⁷ 故⁷⁸ 誑⁷⁹ 有⁸⁰ 三⁸¹ 手⁸² 如⁸³ 因⁸⁴ 緣⁸⁵ 故⁸⁶ 誑⁸⁷ 有⁸⁸ 三⁸⁹ 手⁹⁰ 如⁹¹ 因⁹² 緣⁹³ 故⁹⁴ 誑⁹⁵ 有⁹⁶ 三⁹⁷ 手⁹⁸ 如⁹⁹ 因¹⁰⁰ 緣¹⁰¹ 故¹⁰² 誑¹⁰³ 有¹⁰⁴ 三¹⁰⁵ 手¹⁰⁶ 如¹⁰⁷ 因¹⁰⁸ 緣¹⁰⁹ 故¹¹⁰ 誑¹¹¹ 有¹¹² 三¹¹³ 手¹¹⁴ 如¹¹⁵ 因¹¹⁶ 緣¹¹⁷ 故¹¹⁸ 誑¹¹⁹ 有¹²⁰ 三¹²¹ 手¹²² 如¹²³ 因¹²⁴ 緣¹²⁵ 故¹²⁶ 誑¹²⁷ 有¹²⁸ 三¹²⁹ 手¹³⁰ 如¹³¹ 因¹³² 緣¹³³ 故¹³⁴ 誑¹³⁵ 有¹³⁶ 三¹³⁷ 手¹³⁸ 如¹³⁹ 因¹⁴⁰ 緣¹⁴¹ 故¹⁴² 誑¹⁴³ 有¹⁴⁴ 三¹⁴⁵ 手¹⁴⁶ 如¹⁴⁷ 因¹⁴⁸ 緣¹⁴⁹ 故¹⁵⁰ 誑¹⁵¹ 有¹⁵² 三¹⁵³ 手¹⁵⁴ 如¹⁵⁵ 因¹⁵⁶ 緣¹⁵⁷ 故¹⁵⁸ 誑¹⁵⁹ 有¹⁶⁰ 三¹⁶¹ 手¹⁶² 如¹⁶³ 因¹⁶⁴ 緣¹⁶⁵ 故¹⁶⁶ 誑¹⁶⁷ 有¹⁶⁸ 三¹⁶⁹ 手¹⁷⁰ 如¹⁷¹ 因¹⁷² 緣¹⁷³ 故¹⁷⁴ 誑¹⁷⁵ 有¹⁷⁶ 三¹⁷⁷ 手¹⁷⁸ 如¹⁷⁹ 因¹⁸⁰ 緣¹⁸¹ 故¹⁸² 誑¹⁸³ 有¹⁸⁴ 三¹⁸⁵ 手¹⁸⁶ 如¹⁸⁷ 因¹⁸⁸ 緣¹⁸⁹ 故¹⁹⁰ 誑¹⁹¹ 有¹⁹² 三¹⁹³ 手¹⁹⁴ 如¹⁹⁵ 因¹⁹⁶ 緣¹⁹⁷ 故¹⁹⁸ 誑¹⁹⁹ 有²⁰⁰ 三²⁰¹ 手²⁰² 如²⁰³ 因²⁰⁴ 緣²⁰⁵ 故²⁰⁶ 誑²⁰⁷ 有²⁰⁸ 三²⁰⁹ 手²¹⁰ 如²¹¹ 因²¹² 緣²¹³ 故²¹⁴ 誑²¹⁵ 有²¹⁶ 三²¹⁷ 手²¹⁸ 如²¹⁹ 因²²⁰ 緣²²¹ 故²²² 誑²²³ 有²²⁴ 三²²⁵ 手²²⁶ 如²²⁷ 因²²⁸ 緣²²⁹ 故²³⁰ 誑²³¹ 有²³² 三²³³ 手²³⁴ 如²³⁵ 因²³⁶ 緣²³⁷ 故²³⁸ 誑²³⁹ 有²⁴⁰ 三²⁴¹ 手²⁴² 如²⁴³ 因²⁴⁴ 緣²⁴⁵ 故²⁴⁶ 誑²⁴⁷ 有²⁴⁸ 三²⁴⁹ 手²⁵⁰ 如²⁵¹ 因²⁵² 緣²⁵³ 故²⁵⁴ 誑²⁵⁵ 有²⁵⁶ 三²⁵⁷ 手²⁵⁸ 如²⁵⁹ 因²⁶⁰ 緣²⁶¹ 故²⁶² 誑²⁶³ 有²⁶⁴ 三²⁶⁵ 手²⁶⁶ 如²⁶⁷ 因²⁶⁸ 緣²⁶⁹ 故²⁷⁰ 誑²⁷¹ 有²⁷² 三²⁷³ 手²⁷⁴ 如²⁷⁵ 因²⁷⁶ 緣²⁷⁷ 故²⁷⁸ 誑²⁷⁹ 有²⁸⁰ 三²⁸¹ 手²⁸² 如²⁸³ 因²⁸⁴ 緣²⁸⁵ 故²⁸⁶ 誑²⁸⁷ 有²⁸⁸ 三²⁸⁹ 手²⁹⁰ 如²⁹¹ 因²⁹² 緣²⁹³ 故²⁹⁴ 誑²⁹⁵ 有²⁹⁶ 三²⁹⁷ 手²⁹⁸ 如²⁹⁹ 因³⁰⁰ 緣³⁰¹ 故³⁰² 誑³⁰³ 有³⁰⁴ 三³⁰⁵ 手³⁰⁶ 如³⁰⁷ 因³⁰⁸ 緣³⁰⁹ 故³¹⁰ 誑³¹¹ 有³¹² 三³¹³ 手³¹⁴ 如³¹⁵ 因³¹⁶ 緣³¹⁷ 故³¹⁸ 誑³¹⁹ 有³²⁰ 三³²¹ 手³²² 如³²³ 因³²⁴ 緣³²⁵ 故³²⁶ 誑³²⁷ 有³²⁸ 三³²⁹ 手³³⁰ 如³³¹ 因³³² 緣³³³ 故³³⁴ 誑³³⁵ 有³³⁶ 三³³⁷ 手³³⁸ 如³³⁹ 因³⁴⁰ 緣³⁴¹ 故³⁴² 誑³⁴³ 有³⁴⁴ 三³⁴⁵ 手³⁴⁶ 如³⁴⁷ 因³⁴⁸ 緣³⁴⁹ 故³⁵⁰ 誑³⁵¹ 有³⁵² 三³⁵³ 手³⁵⁴ 如³⁵⁵ 因³⁵⁶ 緣³⁵⁷ 故³⁵⁸ 誑³⁵⁹ 有³⁶⁰ 三³⁶¹ 手³⁶² 如³⁶³ 因³⁶⁴ 緣³⁶⁵ 故³⁶⁶ 誑³⁶⁷ 有³⁶⁸ 三³⁶⁹ 手³⁷⁰ 如³⁷¹ 因³⁷² 緣³⁷³ 故³⁷⁴ 誑³⁷⁵ 有³⁷⁶ 三³⁷⁷ 手³⁷⁸ 如³⁷⁹ 因³⁸⁰ 緣³⁸¹ 故³⁸² 誑³⁸³ 有³⁸⁴ 三³⁸⁵ 手³⁸⁶ 如³⁸⁷ 因³⁸⁸ 緣³⁸⁹ 故³⁹⁰ 誑³⁹¹ 有³⁹² 三³⁹³ 手³⁹⁴ 如³⁹⁵ 因³⁹⁶ 緣³⁹⁷ 故³⁹⁸ 誑³⁹⁹ 有⁴⁰⁰ 三⁴⁰¹ 手⁴⁰² 如⁴⁰³ 因⁴⁰⁴ 緣⁴⁰⁵ 故⁴⁰⁶ 誑⁴⁰⁷ 有⁴⁰⁸ 三⁴⁰⁹ 手⁴¹⁰ 如⁴¹¹ 因⁴¹² 緣⁴¹³ 故⁴¹⁴ 誑⁴¹⁵ 有⁴¹⁶ 三⁴¹⁷ 手⁴¹⁸ 如⁴¹⁹ 因⁴²⁰ 緣⁴²¹ 故⁴²² 誑⁴²³ 有⁴²⁴ 三⁴²⁵ 手⁴²⁶ 如⁴²⁷ 因⁴²⁸ 緣⁴²⁹ 故⁴³⁰ 誑⁴³¹ 有⁴³² 三⁴³³ 手⁴³⁴ 如⁴³⁵ 因⁴³⁶ 緣⁴³⁷ 故⁴³⁸ 誑⁴³⁹ 有⁴⁴⁰ 三⁴⁴¹ 手⁴⁴² 如⁴⁴³ 因⁴⁴⁴ 緣⁴⁴⁵ 故⁴⁴⁶ 誑⁴⁴⁷ 有⁴⁴⁸ 三⁴⁴⁹ 手⁴⁵⁰ 如⁴⁵¹ 因⁴⁵² 緣⁴⁵³ 故⁴⁵⁴ 誑⁴⁵⁵ 有⁴⁵⁶ 三⁴⁵⁷ 手⁴⁵⁸ 如⁴⁵⁹ 因⁴⁶⁰ 緣⁴⁶¹ 故⁴⁶² 誑⁴⁶³ 有⁴⁶⁴ 三⁴⁶⁵ 手⁴⁶⁶ 如⁴⁶⁷ 因⁴⁶⁸ 緣⁴⁶⁹ 故⁴⁷⁰ 誑⁴⁷¹ 有⁴⁷² 三⁴⁷³ 手⁴⁷⁴ 如⁴⁷⁵ 因⁴⁷⁶ 緣⁴⁷⁷ 故⁴⁷⁸ 誑⁴⁷⁹ 有⁴⁸⁰ 三⁴⁸¹ 手⁴⁸² 如⁴⁸³ 因⁴⁸⁴ 緣⁴⁸⁵ 故⁴⁸⁶ 誑⁴⁸⁷ 有⁴⁸⁸ 三⁴⁸⁹ 手⁴⁹⁰ 如⁴⁹¹ 因⁴⁹² 緣⁴⁹³ 故⁴⁹⁴ 誑⁴⁹⁵ 有⁴⁹⁶ 三⁴⁹⁷ 手⁴⁹⁸ 如⁴⁹⁹ 因⁵⁰⁰ 緣⁵⁰¹ 故⁵⁰² 誑⁵⁰³ 有⁵⁰⁴ 三⁵⁰⁵ 手⁵⁰⁶ 如⁵⁰⁷ 因⁵⁰⁸ 緣⁵⁰⁹ 故⁵¹⁰ 誑⁵¹¹ 有⁵¹² 三⁵¹³ 手⁵¹⁴ 如⁵¹⁵ 因⁵¹⁶ 緣⁵¹⁷ 故⁵¹⁸ 誑⁵¹⁹ 有⁵²⁰ 三⁵²¹ 手⁵²² 如⁵²³ 因⁵²⁴ 緣⁵²⁵ 故⁵²⁶ 誑⁵²⁷ 有⁵²⁸ 三⁵²⁹ 手⁵³⁰ 如⁵³¹ 因⁵³² 緣⁵³³ 故⁵³⁴ 誑⁵³⁵ 有⁵³⁶ 三⁵³⁷ 手⁵³⁸ 如⁵³⁹ 因⁵⁴⁰ 緣⁵⁴¹ 故⁵⁴² 誑⁵⁴³ 有⁵⁴⁴ 三⁵⁴⁵ 手⁵⁴⁶ 如⁵⁴⁷ 因⁵⁴⁸ 緣⁵⁴⁹ 故⁵⁵⁰ 誑⁵⁵¹ 有⁵⁵² 三⁵⁵³ 手⁵⁵⁴ 如⁵⁵⁵ 因⁵⁵⁶ 緣⁵⁵⁷ 故⁵⁵⁸ 誑⁵⁵⁹ 有⁵⁶⁰ 三⁵⁶¹ 手⁵⁶² 如⁵⁶³ 因⁵⁶⁴ 緣⁵⁶⁵ 故⁵⁶⁶ 誑⁵⁶⁷ 有⁵⁶⁸ 三⁵⁶⁹ 手⁵⁷⁰ 如⁵⁷¹ 因⁵⁷² 緣⁵⁷³ 故⁵⁷⁴ 誑⁵⁷⁵ 有⁵⁷⁶ 三⁵⁷⁷ 手⁵⁷⁸ 如⁵⁷⁹ 因⁵⁸⁰ 緣⁵⁸¹ 故⁵⁸² 誑⁵⁸³ 有⁵⁸⁴ 三⁵⁸⁵ 手⁵⁸⁶ 如⁵⁸⁷ 因⁵⁸⁸ 緣⁵⁸⁹ 故⁵⁹⁰ 誑⁵⁹¹ 有⁵⁹² 三⁵⁹³ 手⁵⁹⁴ 如⁵⁹⁵ 因⁵⁹⁶ 緣⁵⁹⁷ 故⁵⁹⁸ 誑⁵⁹⁹ 有⁶⁰⁰ 三⁶⁰¹ 手⁶⁰² 如⁶⁰³ 因⁶⁰⁴ 緣⁶⁰⁵ 故⁶⁰⁶ 誑⁶⁰⁷ 有⁶⁰⁸ 三⁶⁰⁹ 手⁶¹⁰ 如⁶¹¹ 因⁶¹² 緣⁶¹³ 故⁶¹⁴ 誑⁶¹⁵ 有⁶¹⁶ 三⁶¹⁷ 手⁶¹⁸ 如⁶¹⁹ 因⁶²⁰ 緣⁶²¹ 故⁶²² 誑⁶²³ 有⁶²⁴ 三⁶²⁵ 手⁶²⁶ 如⁶²⁷ 因⁶²⁸ 緣⁶²⁹ 故⁶³⁰ 誑⁶³¹ 有⁶³² 三⁶³³ 手⁶³⁴ 如⁶³⁵ 因⁶³⁶ 緣⁶³⁷ 故⁶³⁸ 誑⁶³⁹ 有⁶⁴⁰ 三⁶⁴¹ 手⁶⁴² 如⁶⁴³ 因⁶⁴⁴ 緣⁶⁴⁵ 故⁶⁴⁶ 誑⁶⁴⁷ 有⁶⁴⁸ 三⁶⁴⁹ 手⁶⁵⁰ 如⁶⁵¹ 因⁶⁵² 緣⁶⁵³ 故⁶⁵⁴ 誑⁶⁵⁵ 有⁶⁵⁶ 三⁶⁵⁷ 手⁶⁵⁸ 如⁶⁵⁹ 因⁶⁶⁰ 緣⁶⁶¹ 故⁶⁶² 誑⁶⁶³ 有⁶⁶⁴ 三⁶⁶⁵ 手⁶⁶⁶ 如⁶⁶⁷ 因⁶⁶⁸ 緣⁶⁶⁹ 故⁶⁷⁰ 誑⁶⁷¹ 有⁶⁷² 三⁶⁷³ 手⁶⁷⁴ 如⁶⁷⁵ 因⁶⁷⁶ 緣⁶⁷⁷ 故⁶⁷⁸ 誑⁶⁷⁹ 有⁶⁸⁰ 三⁶⁸¹ 手⁶⁸² 如⁶⁸³ 因⁶⁸⁴ 緣⁶⁸⁵ 故⁶⁸⁶ 誑⁶⁸⁷ 有⁶⁸⁸ 三⁶⁸⁹ 手⁶⁹⁰ 如⁶⁹¹ 因⁶⁹² 緣⁶⁹³ 故⁶⁹⁴ 誑⁶⁹⁵ 有⁶⁹⁶ 三⁶⁹⁷ 手⁶⁹⁸ 如⁶⁹⁹ 因⁷⁰⁰ 緣⁷⁰¹ 故⁷⁰² 誑⁷⁰³ 有⁷⁰⁴ 三⁷⁰⁵ 手⁷⁰⁶ 如⁷⁰⁷ 因⁷⁰⁸ 緣⁷⁰⁹ 故⁷¹⁰ 誑⁷¹¹ 有⁷¹² 三⁷¹³ 手⁷¹⁴ 如⁷¹⁵ 因⁷¹⁶ 緣⁷¹⁷ 故⁷¹⁸ 誑⁷¹⁹ 有⁷²⁰ 三⁷²¹ 手⁷²² 如⁷²³ 因⁷²⁴ 緣⁷²⁵ 故⁷²⁶ 誑⁷²⁷ 有⁷²⁸ 三⁷²⁹ 手⁷³⁰ 如⁷³¹ 因⁷³² 緣⁷³³ 故⁷³⁴ 誑⁷³⁵ 有⁷³⁶ 三⁷³⁷ 手⁷³⁸ 如⁷³⁹ 因⁷⁴⁰ 緣⁷⁴¹ 故⁷⁴² 誑⁷⁴³ 有⁷⁴⁴ 三⁷⁴⁵ 手⁷⁴⁶ 如⁷⁴⁷ 因⁷⁴⁸ 緣⁷⁴⁹ 故⁷⁵⁰ 誑⁷⁵¹ 有⁷⁵² 三⁷⁵³ 手⁷⁵⁴ 如⁷⁵⁵ 因⁷⁵⁶ 緣⁷⁵⁷ 故⁷⁵⁸ 誑⁷⁵⁹ 有⁷⁶⁰ 三⁷⁶¹ 手⁷⁶² 如⁷⁶³ 因⁷⁶⁴ 緣⁷⁶⁵ 故⁷⁶⁶ 誑⁷⁶⁷ 有⁷⁶⁸ 三⁷⁶⁹ 手⁷⁷⁰ 如⁷⁷¹ 因⁷⁷² 緣⁷⁷³ 故⁷⁷⁴ 誑⁷⁷⁵ 有⁷⁷⁶ 三⁷⁷⁷ 手⁷⁷⁸ 如⁷⁷⁹ 因⁷⁸⁰ 緣⁷⁸¹ 故⁷⁸² 誑⁷⁸³ 有⁷⁸⁴ 三⁷⁸⁵ 手⁷⁸⁶ 如⁷⁸⁷ 因⁷⁸⁸ 緣⁷⁸⁹ 故⁷⁹⁰ 誑⁷⁹¹ 有⁷⁹² 三⁷⁹³ 手⁷⁹⁴ 如⁷⁹⁵ 因⁷⁹⁶ 緣⁷⁹⁷ 故⁷⁹⁸ 誑⁷⁹⁹ 有⁸⁰⁰ 三⁸⁰¹ 手⁸⁰² 如⁸⁰³ 因⁸⁰⁴ 緣⁸⁰⁵ 故⁸⁰⁶ 誑⁸⁰⁷ 有⁸⁰⁸ 三⁸⁰⁹ 手⁸¹⁰ 如⁸¹¹ 因⁸¹² 緣⁸¹³ 故⁸¹⁴ 誑⁸¹⁵ 有⁸¹⁶ 三⁸¹⁷ 手⁸¹⁸ 如⁸¹⁹ 因⁸²⁰ 緣⁸²¹ 故⁸²² 誑⁸²³ 有⁸²⁴ 三⁸²⁵ 手⁸²⁶ 如⁸²⁷ 因⁸²⁸ 緣⁸²⁹ 故⁸³⁰ 誑⁸³¹ 有⁸³² 三⁸³³ 手⁸³⁴ 如⁸³⁵ 因⁸³⁶ 緣⁸³⁷ 故⁸³⁸ 誑⁸³⁹ 有⁸⁴⁰ 三⁸⁴¹ 手⁸⁴² 如⁸⁴³ 因⁸⁴⁴ 緣⁸⁴⁵ 故⁸⁴⁶ 誑⁸⁴⁷ 有⁸⁴⁸ 三⁸⁴⁹ 手⁸⁵⁰ 如⁸⁵¹ 因⁸⁵² 緣⁸⁵³ 故⁸⁵⁴ 誑⁸⁵⁵ 有⁸⁵⁶ 三⁸⁵⁷ 手⁸⁵⁸ 如⁸⁵⁹ 因⁸⁶⁰ 緣⁸⁶¹ 故⁸⁶² 誑⁸⁶³ 有⁸⁶⁴ 三⁸⁶⁵ 手⁸⁶⁶ 如⁸⁶⁷ 因⁸⁶⁸ 緣⁸⁶⁹ 故⁸⁷⁰ 誑⁸⁷¹ 有⁸⁷² 三⁸⁷³ 手⁸⁷⁴ 如⁸⁷⁵ 因⁸⁷⁶ 緣⁸⁷⁷ 故⁸⁷⁸ 誑⁸⁷⁹ 有⁸⁸⁰ 三⁸⁸¹ 手⁸⁸² 如⁸⁸³ 因⁸⁸⁴ 緣⁸⁸⁵ 故⁸⁸⁶ 誑⁸⁸⁷ 有⁸⁸⁸ 三⁸⁸⁹ 手⁸⁹⁰ 如⁸⁹¹ 因⁸⁹² 緣⁸⁹³ 故⁸⁹⁴ 誑⁸⁹⁵ 有⁸⁹⁶ 三⁸⁹⁷ 手⁸⁹⁸ 如⁸⁹⁹ 因⁹⁰⁰ 緣⁹⁰¹ 故⁹⁰² 誑⁹⁰³ 有⁹⁰⁴ 三⁹⁰⁵ 手⁹⁰⁶ 如⁹⁰⁷ 因⁹⁰⁸ 緣⁹⁰⁹ 故⁹¹⁰ 誑⁹¹¹ 有⁹¹² 三⁹¹³ 手⁹¹⁴ 如⁹¹⁵ 因⁹¹⁶ 緣⁹¹⁷ 故⁹¹⁸ 誑⁹¹⁹ 有⁹²⁰ 三⁹²¹ 手⁹²² 如⁹²³ 因⁹²⁴ 緣⁹²⁵ 故⁹²⁶ 誑⁹²⁷ 有⁹²⁸ 三⁹²⁹ 手⁹³⁰ 如⁹³¹ 因⁹³² 緣⁹³³ 故⁹³⁴ 誑⁹³⁵ 有⁹³⁶ 三⁹³⁷ 手⁹³⁸ 如⁹³⁹ 因⁹⁴⁰ 緣⁹⁴¹ 故⁹⁴² 誑⁹⁴³ 有⁹⁴⁴ 三⁹⁴⁵ 手⁹⁴⁶ 如⁹⁴⁷ 因⁹⁴⁸ 緣⁹⁴⁹ 故⁹⁵⁰ 誑⁹⁵¹ 有⁹⁵² 三⁹⁵³ 手⁹⁵⁴ 如⁹⁵⁵ 因⁹⁵⁶ 緣⁹⁵⁷ 故⁹⁵⁸ 誑⁹⁵⁹ 有⁹⁶⁰ 三⁹⁶¹ 手⁹⁶² 如⁹⁶³ 因⁹⁶⁴ 緣⁹⁶⁵ 故⁹⁶⁶ 誑⁹⁶⁷ 有⁹⁶⁸ 三⁹⁶⁹ 手⁹⁷⁰ 如⁹⁷¹ 因⁹⁷² 緣⁹⁷³ 故⁹⁷⁴ 誑⁹⁷⁵ 有⁹⁷⁶ 三⁹⁷⁷ 手⁹⁷⁸ 如⁹⁷⁹ 因⁹⁸⁰ 緣⁹⁸¹ 故⁹⁸² 誑⁹⁸³ 有⁹⁸⁴ 三⁹⁸⁵ 手⁹⁸⁶ 如⁹⁸⁷ 因⁹⁸⁸ 緣⁹⁸⁹ 故⁹⁹⁰ 誑⁹⁹¹ 有⁹⁹² 三⁹⁹³ 手⁹⁹⁴ 如⁹⁹⁵ 因⁹⁹⁶ 緣⁹⁹⁷ 故⁹⁹⁸ 誑⁹⁹⁹ 有¹⁰⁰⁰ 三¹⁰⁰¹ 手¹⁰⁰² 如¹⁰⁰³ 因¹⁰⁰⁴ 緣¹⁰⁰⁵ 故¹⁰⁰⁶ 誑¹⁰⁰⁷ 有¹⁰⁰⁸ 三¹⁰⁰⁹ 手¹⁰¹⁰ 如¹⁰¹¹ 因¹⁰¹² 緣¹⁰¹³ 故¹⁰¹⁴ 誑¹⁰¹⁵ 有¹⁰¹⁶ 三¹⁰¹⁷ 手¹⁰¹⁸ 如¹⁰¹⁹ 因¹⁰²⁰ 緣¹⁰²¹ 故¹⁰²² 誑¹⁰²³ 有¹⁰²⁴ 三¹⁰²⁵ 手¹⁰²⁶ 如¹⁰²⁷ 因¹⁰²⁸ 緣¹⁰²⁹ 故¹⁰³⁰ 誑¹⁰³¹ 有¹⁰³² 三¹⁰³³ 手¹⁰³⁴ 如¹⁰³⁵ 因¹⁰³⁶ 緣¹⁰³⁷ 故¹⁰³⁸ 誑¹⁰³⁹ 有¹⁰⁴⁰ 三¹⁰⁴¹ 手¹⁰⁴² 如¹⁰⁴³ 因¹⁰⁴⁴ 緣¹⁰⁴⁵ 故¹⁰⁴⁶ 誑¹⁰⁴⁷ 有¹⁰⁴⁸ 三¹⁰⁴⁹ 手¹⁰⁵⁰ 如¹⁰⁵¹ 因¹⁰⁵² 緣¹⁰⁵³ 故¹⁰⁵⁴ 誑¹⁰⁵⁵ 有¹⁰⁵⁶ 三¹⁰⁵⁷ 手¹⁰⁵⁸ 如¹⁰⁵⁹ 因¹⁰⁶⁰ 緣¹⁰⁶¹ 故¹⁰⁶² 誑¹⁰⁶³ 有¹⁰⁶⁴ 三¹⁰⁶⁵ 手¹⁰⁶⁶ 如¹⁰⁶⁷ 因¹⁰⁶⁸ 緣¹⁰⁶⁹ 故¹⁰⁷⁰ 誑¹⁰⁷¹ 有¹⁰⁷² 三¹⁰⁷³ 手¹⁰⁷⁴ 如¹⁰⁷⁵ 因¹⁰⁷⁶ 緣¹⁰⁷⁷ 故¹⁰⁷⁸ 誑¹⁰⁷⁹ 有¹⁰⁸⁰ 三¹⁰⁸¹ 手¹⁰⁸

왕경소의 ‘釋’은 경문을 정확히 해독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석독구결의 해독은 결국 해당 문장을 완전한 번역 문장으로 바꾸는 과정이다. 세부적으로는 구결자로 표현된 구성 요소의 독음을 밝히고 그 구성 요소가 어떠한 문법적·의미적 기능을 하는 것인가를 밝히는 것이다. 경전에 기입된 석독구결의 해독은 경전에 대한 번역과 한문으로 된 경문의 해석을 참고하여 당시의 언어 사실을 재구해 가는 방식으로 연구되었다. 이 방식은 합리적이고 유용하다. 따라서 경전 원문에 대한 정밀한 이해는 석독구결의 해독을 위한 선행 조건이 된다.

이전의 “구역인왕경”의 석독구결에 대한 해독은 대부분 한글대장경과 日譯인 국역일체경, 한문 지식을 동원하여 원문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불경의 경문은 고도의 사상적 표현을 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문으로 된 원문에 대한 축자적(逐字的) 해석만으로는 불충분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경전에 대한 교학적 지식을 담고 있는 논소(論疏)를 적극 활용한다면 경문 해석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해당 문헌에 기입된 구결의 기능을 밝히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구역인왕경”의 석독구결 해독을 위해 인왕경소의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적극 참고할 필요가 이 점에 있다. 원측의 인왕경소는 앞의 교감 결과에서 보듯이 “구역인왕경”과 더 가깝고, 그 경문의 해석이 매우 상세하기 때문이다. “구역인왕경”에 대한 이전의 연구에서 인왕경소의 내용을 참고한 경우는 김두찬(1997:191 각주41, 200 각주 54)에서 부분적으로 단어에 대한 설명을 위한 것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본고는 원측(圓測)이 찬한 인왕경소의 내용을 참조하여 “구역인왕경”에 기입된 석독구결 몇 글자를 해독해 보고자 한다.

2.2. ‘方々’과 ‘方々’, ‘々々’의 해독

2.2.1. ‘方々’과 ‘方々’의 의미

三’에 해당한다는 데 있다.

‘方_ㄷ’과 ‘方_ㄹ’은 부사로 쓰인 ‘方’에 구결자가 기입된 것으로 그 통사적 기능이 같은 글자이다. “구역인왕경”에서는 ‘方_ㄷ’과 ‘方_ㄹ’이 각 1개씩 나타난다.

(2) 가. 爾_ㄷ 時_ㄷ 十_ㄷ 号_ㄷ 三_ㄷ 明_ㄷ 大_ㄷ 滅_ㄷ 諦_ㄷ 金_ㄷ 剛_ㄷ 智_ㄷ 釋_ㄷ 迦_ㄷ
 牟_ㄷ 尼_ㄷ 佛_ㄷ 一_ㄷ 年_ㄷ 乙_ㄷ 初_ㄷ 月_ㄷ 七_ㄷ 八_ㄷ 日_ㄷ 十_ㄷ 方_ㄷ 十_ㄷ 地_ㄷ 十_ㄷ 坐_ㄷ
 <A구인02:10-11>

나. 衆_ㄷ 生_ㄷ 根_ㄷ 得_ㄷ 卽_ㄷ 卽_ㄷ 定_ㄷ 從_ㄷ 起_ㄷ 方_ㄷ 蓮_ㄷ 花_ㄷ 師_ㄷ 子_ㄷ
 座_ㄷ 上_ㄷ 坐_ㄷ 金_ㄷ 剛_ㄷ 山_ㄷ 王_ㄷ 如_ㄷ 一_ㄷ 十_ㄷ 十_ㄷ 十_ㄷ <A구인03:13-14>

김두찬(1997:184 각주 25, 196쪽 각주 47)은 ‘方_ㄷ’을 ‘*비아흐룻’으로 독음하고 日譯文 ‘方に’(まさに)를⁸⁾ 근거로 부사 ‘바야흐로’로 파악하였다. ‘方_ㄹ’은 ‘ㄹ’을 ‘方’의 초서체로 추정한 김영만(1986)의 견해에 따라 전자와 동일한 ‘*비아흐룻’으로 파악하였다. 남성우·정재영(1998:224, 230 각주 46)은 전자를 ‘비룻(뫋)’으로 한글 전사하고, 후자는 字體가 다른 점은 있지만 앞의 ‘方_ㄷ’을 근거로 ‘비룻(뫋)’으로 동일하게 파악하였다.⁹⁾ 장경준(2013:171, 179)에서는 후자를 종결어미에 쓰인 ‘ㄷ’과 동일한 자형으로 파악하고 그 기능도 종결어미를 나타낸 것으로 파악하였다. 황선엽(2013:13-14, 19)에서는 전자를 ‘뫋(비룻)’으로 음독하고 ‘바로(비로소)’를 나타낸 것으로, 후자를 전자와 동일하게 ‘뫋(비룻)’으로 음독하고 ‘비로소(바야흐로)’로 해독하여 음독은 동일하지만 해독에는 약간의 차이를 두었다. “구역인왕경”의 구결 기입 양상과 기입 태도를 참고할 때 같은 말을 다른 표기로 나타냈을 가능성은 낮다. 서로 다른 구결자가 기입되었다면 서로 다른 형태를 나타냈을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인왕경소의 내용을 살펴보자.

8) 일본어 ‘まさに’는 ‘正に, 將に, 当に, 方に’로 서로 다른 한자를 동일한 음으로 읽는다.

9) 남성우·정재영(230, 각주 46)은 ‘方’은 15세기에 대개 ‘비아흐로’나 ‘보야흐로’로 연해되었다고 보았다. 앞의 ‘方_ㄷ’과 뒤의 ‘方_ㄹ’이 서로 다른 것을 나타낸 것이라면 둘 중 하나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가. 經 方坐十地

釋曰 第三正住十地 方者正也 謂諸如來 欲現瑞相 正住十地 然此十地 이하 생략¹⁰⁾

나. 인왕경소 해석¹¹⁾

경: 반듯이(方) 십지에 앉으시어

석: 세 번째는 십지에 바로 머무신 것이다. ‘방(方)’은 바름(正)이다. 말하자면 모든 여래께서 상서로운 모습을 나타내시고자 십지에 바르게 머무셨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십지에 대해 본래 두 가지 해석이 있다.(이하 생략)¹²⁾

(3)의 인왕경소의 ‘釋’에 따르면 ‘方者正也’로 ‘方’의 뜻이 분명히 ‘正’임을 밝히고 있다. 다른 석독구결 자료에서 ‘方’과 ‘正’에 어떤 구결자가 기입되었는지 살펴보자.

10) 생략 부분: 自在兩釋 一云 極喜等菩薩十地 一云 大乘同性經所說 四種十地中 如來十地 如上所引 證契經者 與同性經 同本異譯 前三十地 文意大同 故不別敘 如來十地者 同性經云 一名甚深難知廣明智德地(證契經云 毘富羅光明智作地)除一切微細習氣 於一切法 得自在故 二名清淨身分威嚴不思議明德地 轉正法輪 顯甚深義 三名善明因幢寶相(證契經云 寶熾海藏地)說聲聞戒 顯三乘故 四名精妙金光功德神通智德地 說八萬四千法門 降伏四魔故 五名大輪威藏明德地 摧諸異論及其邪法 調伏一切行惡道者(證契經云 光明味場)六名虛空內清淨無垢炎光開相地(證契經云 空中勝淨無垢持炬間敷作地)示六神通 現六大神通 故謂現無邊清淨佛刹功德莊嚴 顯現無邊菩薩大眾圍遶 顯現無邊廣大佛刹 顯現無邊佛刹自體 顯現無邊諸佛刹中 從兜率天下託胎 乃至法滅 示現無邊種種神通 七名廣勝法界藏明界地(證契經云 光明起作)爲諸菩薩 如實開顯七菩提法 自性無有無所著故 八者最勝普覺智海藏能淨無垢遍無礙智通地(證契經云 最勝妙淨佛智藏光明遍照清淨諸障智遍地也)授一切菩薩 阿耨多羅三藐三菩提 四種記故(首楞嚴經說 一未發心記 二遍發心記 三密受記 四已得無生忍記 寶雲經 亦同此說也)九名無邊億莊嚴迴向能照明地(證契經云 無邊莊嚴俱那願毘盧遮那光作地也)爲諸菩薩 現善方便 十名毘盧遮那智海藏地(證契經云 智海信盧遮那)爲諸菩薩 說一切法無所有故 本來寂滅 大般涅槃 雖有兩說 本記意存菩薩十地 故彼記云 今言十地 通入十地法門 若只入第十地 下九地則不解 化身故有出入 應身即常在定 法身非定非不定

11) 생략 부분에 대한 설명은 백진순 옮김(2010: 197-199)을 참조하라.

12) 인왕경소의 내용은 백진순 옮김(2010)의 해석에 기대었다. 이하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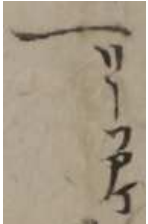

(7) 가. 經 佛即知時(至)如金剛山王

釋曰 第四佛昇華座 謂知根熟 坐師子座

나. 경: 부처님께서 곧 때가 되어 중생의 근기가 익었음을 아시고 곧 선
 정에서 일어나시어 비로소 연화사자좌(蓮花師子座) 위에 앉으시니
 마치 금강의 수미산(金剛山王)과¹⁴⁾ 같았다.

석: 네 번째는 부처님께서 화좌에 오르셨음을 밝힌 것이다. 말하자면
 근기가 무르익었음을 아시고 사자좌에 앉으셨다는 것이다.

(7가)의 경문 해석을 따르면 이때 ‘方_ㅅ’은 부사 ‘비로소’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왕경소는 이 부분의 ‘方’에 대한 특별한 해석이 없으므로 문맥
 에 따라 해독을 추정하였다. 만약 ‘方_ㅅ’이 (2가)의 ‘方_ㅈ’과 같은 의미를 나타
 내는 것이라면 표기가 다른 ‘方_ㅅ’을 쓸 까닭은 없을 것이다.¹⁵⁾ “구역인왕경”
 에 나타난 ‘ㅅ’과 ‘ㅈ’의 자형 사진을 아래에 제시한다.

		
구인3:20	구인15:05	구인3:13
사진 2	사진 3	사진 4

14) 백진순 율김(2010: 223, 각주 562)에 “山王은 수미산을 가리킨다.”라고 설명하
 고 있으므로 이때의 山王은 인칭이 아닌 수미산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므로
 해당 구절에 대한 석독구결의 경어법 등을 분석할 때 참고할 수 있다.

15) 장경준(2013)은 ‘方_ㅅ’의 ‘ㅅ’를 ‘ㅈ’로 보고 종결어미로 파악한 것은 이 부분의
 해석과는 상통하지 않는다. 구역인왕경상의 나타난 두 개의 ‘ㅈ’의 자형은 매우
 분명하지만 이 ‘ㅅ’ 자형은 ‘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위의 사진들을 살펴보면 사진 2와 사진 3의 ‘ㄹ’을 사진 4의 ‘ㄷ’과 동일한 구결자로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글자 첫 획의 모양과 마지막 획의 모양에서 동일성보다는 차이점이 더 많이 발견된다. 따라서 구결자 ‘ㄹ’와 ‘ㄷ’는 서로 다른 글자로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앞의 (2)와 (4)에서 ‘方’에 ‘ㄷ’이 기입된 ‘方ㄷ’을 살펴보았다.

(8) 此 次第 人 此 因 人 此 緣 人 乙 依 ㄹ 瑜 伽 乙 修 習 ㄹ 方 ㄹ 得 亦 成 滿 ㄹ 尸
 人 乙 由 ㄹ 1 人 ㄹ ㄹ ㄹ <유가07:20-21>



그림 1

이제 ‘方’에 기입된 다른 구결자를 살펴보자.¹⁶⁾ (8)은 ‘方’에 ‘ㄹ’이 기입된 ‘方ㄹ’로 나타난 글자이다. 장경준 (2013:190)에서 수식언을 표기한 경우로 파악하고 있는 예로 “구역인왕경”의 ‘方ㄹ’이 표기한 것과 유사하게 부사를 나타내었을 가능성이 있다. 서로 다른 구결자가 ‘方ㄷ’, ‘方ㄹ’은 부사로서 그 통사적 기능은 동일하지만 그 의미는 서로 다른 각각의 부사 어형을 표현한 것이다. 오른쪽 그림은 ‘ㄹ’의 원자를 ‘守’의 생획자 ‘ㄹ’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 글자가 나타내는 음은 ‘비르소/비르수’의 소급형의 마지막 음인 ‘소/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두시언해 초간본에 나타나는 ‘비르수’와 중세국어 나타나는 ‘비로소/비로수’의 소급형에 해당하는 단어의 마지막 음을 차자로 나타냈을 가능성이 있다. (8)의 ‘方ㄹ’은 중세국어 이표기인 ‘비르서’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方’에 ‘ㄹ’이 결합한 형태는 ‘비로소’에 해당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어형을 표기한 것이고, ‘方’에 ‘ㄷ’이 결합한 형태는 ‘뫓’과 같은 어형을 표기한 것으로서 의미는 유사하지만 그 형태가 다른 별개의 단어를 표기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2.2.2. ‘ㄹ’의 해독과 그 機能

16) 심사위원 한 분이 ‘ㄹ’의 원자(原字)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본고에서는 ‘守’의 생획자 또는 ‘守’의 아랫부분인 ‘ㄹ’의 초서로 추정하였다.

석독구결의 연구는 해당 자료에 기입된 구결자를 올바르게 판독해 내는 일에서 시작된다. 기존의 판독안에 의거한 결과에 의문이 생긴다면 그 판독안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를 의심해 보아야 한다는 장경준(2006:266)의 주장에 동의한다. 이 전제에서 출발하여 다시 ‘ㄷ’를 검토해 보자. 장경준(2006)은 그동안 ‘ㅎ’로 판독해 왔던 ‘ㄷ’를 ‘火’의 변이 ‘火-1’로 설정하고 이를 자형상 “금광명경”과 “유가사지론”의 발견된 ‘火’의 변이형 ‘火-1’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근거로 첫째 동사 ‘ㅎ다’의 활용형 ‘ㅎ야’의 표기로 보기 어렵고, 둘째 통사의미적 환경이 ‘ㅃ’을 표기한 구결자 ‘火’ 및 그에 대응되는 구결점의 사용 환경과의 일치하고, 셋째 자형상으로 “금광명경”과 “유가사지론”에서 발견된 변이형 ‘火-1’과 통하는 점을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장경준(2006)의 이러한 견해에 대해 다음의 세 가지 근거로 ‘ㄷ’과 ‘ㄷ’는 뚜렷이 구분된다. 첫째 통사 의미적 환경에서 ‘ㄷ’는 사동의 의미를 나타낸다. 셋째 그 자형의 原字가 ‘興’일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로 “구역인왕경”에 기입된 ‘火’과 ‘ㄷ’의 모양을 살펴보자.

			
<p>구인2:24</p>	<p>구인3:17</p>	<p>구인15:8난상</p>	<p>구인11:6</p>
<p>사진 5</p>	<p>사진 6</p>	<p>사진 7</p>	<p>사진 8</p>

위의 사진을 보면 앞의 [사진 5], [사진 6], [사진 7]의 ‘ㄷ’와 [사진 8]의 ‘ㄷ’의 ‘ㄷ’는 동일한 형태의 변이형이라고 보기 어렵다. 두 글자는 자형의 크기와 모양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차이를 보인다. 앞의 세 개는 그것을 한글자로 파악하거나 두 글자로 파악하는 것에 상관없이 서로 동일한 구결자로 보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네 번째 ‘ㄷ’는 분명하게 앞의 것과 구분되는 전혀 다른 글자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 동일한 기능과 독음을 나타내는 형태를 동일한 문헌에서 ‘ㄷ’과 ‘ㄷ-1’의 두 가지로 나눈다는 점을 수궁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ㄷ’와 ‘ㄷ’은 유사한 유형을 나타낸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구결자의 분석과 자형 확정은 동일한 자료 내에서 먼저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자료에 나타난 동일한 유형의 구결자는 석독구결 전체 체계에 부합할 때에만 가능하다. 전체 체계에 부합된다는 것은 먼저 동일 자료 내에서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ㄷ’ 앞부분 ‘ㄷ’와 “구역인왕경”에 기입된 ‘ㄷ’ 연결형의 구결자를 살펴보자.

 구인2:24					
	구인3:17	구인11:7	구인14:5	구인14:6	구인14:7
					
	구인14:3	구인15:13	구인15:14	구인15:19	구인15:22
사진 10					

앞의 [사진 10]을 보면 ‘ㄱ’의 ‘ㄱ’와 다른 연속형의 ‘ㄱ’가 동일한 표기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이러한 점에서 ‘ㄱ’는 한 글자가 아닌 두 글자로 나누어 보는 이전의 자형 판독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ㄱ’가 기입된 구결의 통사의미적 환경을 살펴보자. 해당 구결의 의미를 보다 정밀하게 이해하기 위해 ‘ㄱ’가 쓰인 세 부분에 해당하는 인왕경소의 내용을 살펴보자. 먼저 “구역인왕경” 2장 24행의 ‘名’ 기입된 ‘名ㄱ’에 대해 논의해 보자.

(9) 時十 十六 大國王七 中七 舍衛國主リニ尸 波斯匿王リ 名[ㄱ] 曰白尸
 月光: ㄱ 白 尸 今 1 <구인02:24-25>

(10) 가. 經 時十六(至)名曰月光

釋曰 第三問眾不決 文別有二 初王問眾 以明眾不決 前中有三 初辨住處 次標別名 後讚其德 중간 부분 생략¹⁷⁾ 言波斯匿王 名曰月光者 標別名也 梵音波斯匿王 此云勝軍 在俗之稱 名曰月光者 本記云 國王姓月 聞法以後 更立光名

나. 경: 이때 열여섯 대국의 왕들 중에 사위국 임금 바사닉왕은 월광이라고도 이름 하는데

석: 세 번째는 대중에게 물었으나 답하지 못했음을 밝힌 것이다. 경문은 두 가지로 구별된다. 처음은 왕이 대중에게 물은 것이고 다음은 대중이 답하지 못했음을 밝힌 것이다. 전자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처음은 머무는 곳을 밝힌 것이고, 다음은 그 별명을 표시한 것이며, 마지막은 그 공덕을 찬탄한 것이다.(~) “바사닉왕은 월광이라고도 이름 하는데”라고 한 것은 별명을 표시한 것이다. 범음 ‘바사닉’은

17) 생략 부분: 言舍衛國主 舉國顯人 依智度論 國名憍薩羅國 主名波斯匿王(不知以何爲正) 今言舍衛國 或言舍婆提城 或言舍羅婆悉帝夜城 並訛也 正言室羅婆悉底城 此譯云聞者城 法鏡經云聞物國 十二遊經云無物不有國 善見律云 舍衛者是人名 昔人居住此城 往古有王 見此地好 故乞立爲國 以此人名 號舍衛國 一名多有國 諸國珍奇皆歸此國 又西方典語 名室羅筏 此云幼少不可害 由劫初有仙 兄弟二人 在此修道 弟云室羅 此云幼少 兄名阿羅筏 在此修道 因以名地 以地名國 以國名城 名室羅筏國 及室羅筏城 前譯訛略 故云舍衛 國名爲憍薩羅 城名舍衛城等 前翻譯者 以其城名 持爲國稱

釋 略中有四 一者知王請意 二略開二護 三勸發三慧 四歡喜供養 此即第一知王意也

- 나. 경: 이때 부처님께서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열어서 대국의 왕들이 국토를 수호하는 인연에 대해 물으려 하는 것임을 알겠습니다. 석: 두 번째는 경문에 의거해서 해석하는 것이다. 이하의 다섯 품은 정설분을 설명한 것이다. (~) 나중의 “이때 대왕...” 이하는 문답으로 자세하게 해석한 것이다. 처음의 간략한 진술에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부처님께서) 왕이 청한 뜻을 아셨다는 것이다. 둘째는 두 가지 내호를 간략하게 열어 보이신 것이다. 셋째는 삼혜를 내도록 권하신 것이다. 넷째는 대중이 기뻐하여 공양한 것이다.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부처님께서 왕이 청한 뜻을 아셨다고 한 것이다.

(12나)의 해석을 보면 ‘왕이 청한 뜻’을 아셨다고 설명하고 있다. 요청의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도록 시키는 것이다. 또한 ‘欲’은 다른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위하여 그렇게 하도록 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問_白欲_スソ_ニト_クヲ_クス_ル’이 ‘_ス’의 목적어가 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고 이때의 주어는 ‘十六 大國王’이고 주격 표지는 ‘_ニ’이다. ‘問_白欲_スソ_ニト_クヲ_ク스_ル’은 ‘知’의 목적어이자 ‘_ス’의 목적어로 기능하며 ‘_ク’은 대격 표지로 분석할 수 있다.²¹⁾ 그러므로 (12)의 ‘_ス’는 (9)에 대한 분석과 동일하게 사동의 의미를 나타낸 연결어미로 기능을 갖는다. 끝으로 15장의 난상에 기입된 ‘衆生_ヲノ_クス_ル’를 살펴보자.

(13) 幻化_ヲ見_ス 幻化_ニ見_トク 衆生_ヲノ_ク스_ル [_ス] 名_ヲ 幻諦_ニノ_チカ
<구인15:08난상>

(14) 가. 經: 幻化見幻化(至)諦實則皆無

釋曰 第二顯能所化虛 謂幻化見幻化者 皆非實有 故維摩云 其說法者無示 其聽法者 無聞無得 諸說不同 准上應知

나. 경: 허깨비가 허깨비를 보니, 중생을 환제라고 이름하고, 환술사는 환

21) 이때 ‘_ス’의 ‘_ス’는 대동사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법이라 보니, 진실에서는 다 없는 것이네.

석: 두 번째는 교화하는 자와 교화되는 대상이 헛됨을 나타낸 것이다. 말하자면 “허깨비가 허깨비를 보니”라는 것은 모두 실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유마경”에서는 “그 법을 설하는 자는 설함도 없고 보여 줌도 없으며, 그 법을 듣는 자도 들음도 없고 연음도 없다.”라고 하였다. 여러 설이 다르니, 앞에 준해서 알아야 한다.

(13)은 “구역인왕경” 15장의 난상에 따로 기입된 것으로 본문의 기입된 구결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경문의 계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내용 자체가 축약되어 있고 비유로 표현되어 있다. 인왕경소의 내용에서 보듯이 그 내용도 높은 수준의 추상성을 띠고 있다. 인왕경소 ‘釋’에서 인용한 유마경의 “보여 줌도 없으며”라는 구절을 통해 해석하면 즉 허깨비가 허깨비인 자신을 보는 것이니 중생이 ‘허깨비’임을 보게 하여 모든 것이 실재가 아닌 것을 깨닫게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부분도 (11)의 예와 같이 ‘衆生ヲノリ’은 목적어로 ‘乙’을 대격 조사로 ‘ㄷ’을 동사 활용형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때의 주어는 ‘幻化’(허깨비)가 된다. 또한 구조적으로 앞부분의 ‘幻化ヲノリ’와 같이 ‘ㄷ’과 같이 동사 ‘ㄷ’의 활용형이 반복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²²⁾ “구역인왕경”에는 ‘ㄷ’의 활용형이 조사나 동사구에 연속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여러 번 나타난다.

‘ㄷ’의 두 번째 글자인 ‘ㄷ’의 독음과 원자에 대해 살펴보자. 앞의 통사적·의미적 분석에서 ‘ㄷ’의 그 의미가 ‘이름을 부르게 하다’, ‘묻게 하다’, ‘보게 하다’를 표현함을 논의하였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사동의 통사적 기능을 가진다. 이러한 사동의 기능이 있는 다른 활용형의 예를 “구역인왕경”에서 찾아보자.

(14) 作樂ノ声カ亦ㄷ 然ヒㄷニ下亦ㄷ 復ク共ヒ量無ヒテ音樂乙作ㄷ
 如來乙 覺寤ㄷリ自ロハニテ<구인03:12-13>

22) 박진호(1998:191)에서는 ‘ㄷ’를 대동사로 보충해 넣는 사실을 지적하며 “구역인왕경”의 적극적인 구결 기입 태도를 이 자료의 특징으로 보았다.

(14)의 ‘覺寤 ヲ 白 ヲ ハニ 1’는 ‘깨우고’로 해독할 수 있고, 그 사동의 기능은 구결자 ‘ㄷ’가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황선엽(2013:19)에서는 ‘히이슌 고기신’으로 음독하고 그 뜻을 ‘깨게 하셨는데’로 해독하고 있다. 구결자 ‘ㄷ’의 음을 ‘이’에 그 기능을 사동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를 ‘ㄷ’에 적용하면 ‘ㄷ’에도 사동을 나타내는 ‘ㄷ’의 음에 해당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또한 동사 어간인 ‘-’에 사동의 기능을 나타내는 요소가 직접 결합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15세기 중세국어에서 사동을 나타낸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 (15) 가. 괴여 爲我愛人而 괴여 爲人愛我 소다 爲覆物而 쏘다 爲射之之類 <훈해48>
 나. 나라 니슬 아드를 히마 빅여 아바닛 願 일우과라 히시고 <釋詳 3:25a>
 다. 가져 著히야 長常業報에 미여 遂昧眞覺於長夜히며 瞽智眼於永劫히야 <月釋1:月釋序3b>
 라. 王이 威嚴이 업서 닌미 소내 귀여 이시며 維那離國은 싸흠 즐기고 <月釋2:11a>
 마. ㅁ장 깃거 몬내 기리샤 惡友란 갈메여 가도시고 使者 브려 <月釋 22:63b-63a>
 바. 곧 더어귀 미여 屬홀썩 <月釋11:52b_6_주3>
 사. 衆生은 塵勞에 돕고 二乘은 空寂에 업미여 잇다가 <月釋13:52a>
 아. 두 아길 드리샤 술위를 텃시고 물을 메여 굶이시니이다 <月釋 20:42b>
 자. 다시곰 부르니 아니 니거늘 미여 가아 닐오되 <三綱런던患29>
 차. 崔氏 도즈기 갈홀 아사 나모 지여 셔어서 닐오되 나를 주기거든 <三綱런던烈13>
- (16) 가. 使는 히여 히는 마리라 人은 사르미라 易는 쉬블 씨라 <훈언3a>
 나. 사름마다 히여 수비 니겨 날로 뿌메 便便安한리 히고져 <훈언3b>
 다. 堀애 드러 보시고 깃그샤 즉자히 香湯애 沐浴히여 <釋詳11:28b>

(15)의 예문은 이들은 모두 ‘여’의 형태로 나타나고 그 통사적 기능은 사동

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15세기 자료에서 종결어미의 끝 구성 요소인 ‘ㅁ’는 나타나지 않는다. (16)의 예문은 동사 ‘ㅎ-’에 결합한 ‘-ㅁ’이다. (16 나)는 원문 ‘欲使人人便~’의 번역으로서 (11)의 ‘國土乙 護ノホセ 因緣乙 問 白 欲スソニトウ 1入乙ソム’ 구절과 구조적 유사성을 가진다.

앞에서 논의한 사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과 15세기 국어의 형태를 근거로 하여 “구역인왕경”에 기입된 구결자 ‘ㅁ’의 독음을²³⁾ ‘히ㅁ’로 추정하고자 한다. ‘ㅁ’의 ‘ㅁ’의 음이 ‘ㅁ’라면 그 구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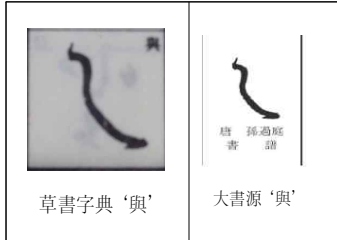


그림 2

자의 원자에서도 관련성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ㅁ’ 原字를 ‘與’로 추정한다. 그 잠정적인 근거는 ‘與’의 草書가 ‘ㅁ’가 앞의 그림과 같이 자형이 서로 유사하고 그 음이 ‘ㅁ’이기 때문이다.²⁴⁾

3. 시간 표현의 문법 형태

3.1. ‘-ㅁ-’와 시간 표현

“구역인왕경”에서 시간 표현과 관련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선어말어미

23) 심사위원 한 분은 ‘히ㅁ’에 대응할 만한 표기로 유가사지론에 나트는 ‘ㅁㅁㅁ’가 있는데 이는 ‘ㅁㅁ’와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 표기가 다른 경우 다른 어형을 나타냈을 것으로 보고 ‘ㅁㅁㅁ’와 ‘ㅁㅁ’는 서로 다른 어형이라는 데까지만 논의를 한정하였다. ‘ㅁㅁㅁ’는 사동 접미사 ‘이’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표기이고, ‘ㅁㅁ’는 음운론적으로 한 음절로 실현되는 현상을 표기에 반영한 것이라고 잠정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두 표기의 통사 기능의 유사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24) ‘ㅁ’의 原字가 ‘與’가 아닐지라도 ‘ㅁㅁ’를 ‘히ㅁ’로 음독하고 그 기능을 사동의 요소가 포함된 연결어미로 보는 것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에 해당하는 구결자는 ‘-ㅅ-’와 ‘-ㅈ-’를 제시할 수 있다.²⁵⁾ 김영옥(1999:147-148)은 선행 논의에서 시제 형태로 분석한 ‘-ㅈ-’의 기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문장에 대한 시간 해석에 필요한 동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한 직설법의 ‘-ㅈ-’와 ‘-ㅅ-’, 추측법의 ‘-ㅈ-’, 확인법의 ‘-ㅅ-’²⁶⁾, 원망법의 ‘-ㅈ-’를 제시하고 그 의미 기능을 시상과 관련지어 논의하였다. 본고는 이들 형태가 시간을 표현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고 본다. 그러나 이들이 중세국어에서 나타나는 대응 형태와 완전히 일치하는 문법 기능을 갖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현대국어까지 이어지는 시간 표현 문법 형태의 연속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5세기의 선어말어미 {-거-}는 석독구결 자료에서 선어말어미 위치에 나타나는 ‘-ㅅ-’에 소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동일한 분포를 보이는 향가의 ‘去’와 연속선상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 고대 국어에서 부터 현대국어에 이르기까지 {-거-}는 그 기능에 대하여 주로 확인법의 의미로 파악되어 시간 표현의 관점에서 과거의 사건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구역인왕경”의 석독구결을 대상으로 그 분포를 파악하고 기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김영옥(1999:159)은 “구역인왕경”에 나타나는 ‘-ㅅ-’와 ‘-ㅈ-’를 모두 동일한 기능을 지닌 서법 형태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때 서법은 원칙법과 구분되는 부차 서법을 이루는 중세국어와 다르

25) 심사위원 한 분은 2장과 3장의 논의가 상호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본고는 석독구결에 나타난 시간 표현을 논의의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구역인왕경”의 서지 정보 및 구결자의 자형에 대한 논의가 주제와 동떨어져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본고의 서론에서 밝혔듯이 정밀한 논의를 위한 준비로서 이 부분이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구역인왕경” 자료 이외에 석독구결 자료도 함께 다루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본고에서는 분량상 모두 다루지 못하고 다른 자료의 관련되는 몇 개의 예만 다루었다. 이후 다른 논의에서 충분히 다루고자 한다. 심사위원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26) 확인법의 선어말어미 ‘-거-’와 ‘-어-’는 동사의 종류에 따라 구분되는 통사론적 조건에 따른 이형태로 논의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ㅅ-’와 ‘-ㅈ-’를 동일한 문법 형태의 이형태로 파악하지 않고 잠정적으로 각각 다른 형태로 파악하고자 한다. 두 형태가 갖는 문법 기능의 동일함이 다른 논의로 증명되었을 때 석독구결 자료에서 이들 형태가 이형태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고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확인법은²⁷⁾ 화자의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을 포함한다. “구역인왕경”의 석독구결에서 시간 표현과 관련된 구문에 출현한 ‘-ㅅ-’의 의미를 파악해 보자.²⁸⁾

(17)가. 佛1 卽5 時11 矣11 1 矣11 乙 知11 矣11 <A구인03:13-14>

나. 부처는 바로 때인 줄을 아시며

다. 부처님께서 때를 아시고 (중생의 근기를 아시어 선정에서 일어나셔서 비로소 연화사좌 위에 앉으시니, 마치 금강산왕(金剛山王)과도 같으셨다.)

(18)가. 一 非11 矣11 異 非11 矣11 故11 矣 名11 續11 諱11 矣 矣11 <구인14:07-08>

나. 한 가지[-]가 아니며 다른 것[異]도 아니어서 (그러므로) 일컬어 續諱라 하는 것이며,

다. 하나도 아니요 다른 것도 아닌 까닭에 이름하여 상속제(相續諱)라 하느니라.

(17)은 동사 ‘알다(知11 矣11)’의 대격으로 나타난 ‘時11 矣11 1 矣11 乙’의 ‘-ㄴ#ㄹ’의 ‘계사+ 선어말어미+ 동명사어미#의존명사’에 나타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때 ‘-ㅅ-’ 형태로 나타나 ‘-ㅅ-’의 의미와 관련하여 중세국어의 선어말어미 ‘-고-’와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도 가능하다. 그러나 문법 형태의 결합 순서로 보았을 때 ‘-ㅅ-’는 담화 참여자에 관한 문법 형태 표지일 가능성이

27) 본 논의는 중세국어의 확인법과 동일하게 ‘-ㅅ-/-ㅅ-’를 형태론적 조건에 따른 이형태로 보는 ‘확인법’을 부정하지 않는다. 본고의 관점에서 확인법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김영옥(1999:159)에서 “‘확인법’이란 명제 또는 사태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인 확신’을 나타내는 서법의 일종이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며 ‘-ㅅ-’의 기능이 화자의 주관적인 확신이 선행하는 언어 사실에 대한 현재 이후 즉 미래의 지각이라는 관점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28) 예문에 제시되는 구역인왕경 원문은 釋讀口訣을 우리말 어순에 맞게 풀어 놓은 것으로 ‘가’행은 장경준(2015)의 ‘sktot_2015_07’를 활용하여 정리하였고, ‘나’행은 황선엽(2013)의 주해와 현대어역을 참조하여 釋讀口訣의 의미를 고려한 현대어역으로 제시하였다. ‘다’행은 필요에 따라 동국대 역경원의 한글대장경 번역을 수의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높다. 그러므로 이때 전체 문맥에서 해석할 수 있는 시간 의미는 ‘부처님께서 때를 아시는 시기’ 즉 주어인 부처님에 관련한 시간 표현이 현재 이후임을 나타내는 표지로 파악할 수 있다. 문장의 주어인 부처님이 아는 대상은 때이며 이는 ‘時’ 뒤에 결합한 계사 ‘而’의 기능이며 이에 결합한 선어말어미 위치의 ‘-후-’는 선행 표현 전체에 대한 주어 또는 화자의 시간 인식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8)은 ‘非矣후’의 형태로 나타나 ‘-후-’로 분절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뒤의 ‘故矣’와 연결되어²⁹⁾ 부정문의 연결형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구문도 계사의 부정 구문인 ‘아니-’에 선어말어미 위치의 ‘-후-’가 결합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때 해석을 살펴보면 ‘다른 것도 아니어서’로 화자가 발화 이전에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즉 ‘-후-’는 화자가 선행 언어표현의 발화 이후에 이를 알게 됨을 표현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19)가. 金剛原₃ + 登₃후₃니₃니₃ 淨土₃ + 居₃후₃니₃니₃ | <구인11:07>

나. 金剛原에 登하신 이어야 淨土에 居하실 것이다.

다. (일체 중생 잠시 과보에 머무나) 금강의 근원에 오르면 정토에 살리.

(20)가. 此₃ 無₃二₃니₃니₃ 通達₃후₃니₃니₃ 眞₃第一₃義₃ + 入₃후₃니₃니₃ | <구인15:06>

나. 이 둘 없는 것을 通達하신 것을 참으로 第一義에 들어가신 것이라고 한다.

다. (알면 항상 스스로 하나 / 법[諦]은 항상 스스로 둘 / 이 둘 없음 통달하면 참으로 제일의(第一義)에 들어가리라.

(21)가. 五眼₃ 成₃就₃후₃니₃니₃ 時₃ + 見₃니₃니₃ 所₃ 無₃니₃니₃ <A구

29) ‘故矣’의 ‘故’가 不讀字일 경우 이런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실제 석독구결에서 이유와 원인의 의미로 연결되는 ‘故’와 ‘而’ 등이 부독자로 판독되는 경우가 많다. 심사위원 한 분은 ‘-후-’에 후행하는 ‘후’는 연결어미일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본고는 ‘후’는 선어말어미와 연결어미를 모두 나타낼 수 있는 표기로 보고 그 통사적 구성 등을 참조하여 이를 구분하고자 하였다. 다만 ‘故’와 같은 부독자가 앞부분과 연결되어 해석이 가능할 때 앞쪽의 ‘후’를 선어말 위치로 파악하였다.

인15:16>

- 나. 五眼이 成就되신 때에 보시나 볼 바 없으시며,
- 다. 오안(五眼)이 이루어질 때 보아도 보이는 것이 없나니,

(22)가. 菩提乙 以シヲ 煩惱 爲シテ 菩薩ニ 成佛ソムルニ 時ト 煩惱乙
以シ 菩提 爲シテ 佛ニ 成リ <구인15:18-19>

- 나. 菩提를 써 煩惱 삼지만 菩薩이 成佛한 때에 煩惱를 써 菩提 삼는다,
- 다. (보살이 아직 성불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보리를 가지고 번뇌를 삼고 성불하였을 때는 번뇌를 가지고 보리로 삼느니라.

(19)~(22)에서 ‘-ㅅ-’가 나타나는 환경은 공통적으로 ‘한자어 동사+ ㅅ-’가 선행하고 뒤에 동명사어미 ‘+ ㅅ(ㄷ ㅅ)#명사’가 후행하는 구문이다. 이때의 ‘-ㅅ-’는 모두 ‘ㅅ-’에 직접 결합하고 있다. 의미 해석을 살펴보면 (19)는 ‘金剛原에 登하-’는 일이 이미 일어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이를 말하는 화자는 가정 표현으로서 앞으로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것을 표현하고 있다. 즉 주어 또는 화자가 선행 언어 표현이 발화 현재 이후에 인지하게 됨을 표현하는 것이다. (20)과 (21)의 ‘들어가는 일’과 ‘성취하시는 일’에서도 ‘들어감’과 ‘성취함’ 또한 주어 또는 화자가 발화 이후인 미래에 이 사실을 인지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22)의 ‘성불하였을 때’ 해석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불함’을 인식하는 것은 앞으로의 미래의 일에 대한 주어 또는 화자의 인식을 나타낸 것이다. 이상의 해석을 종합하면 이러한 주어 또는 화자의 ‘지각’ 시간에 대한 의미를 표현하는 문법 형태로 공통적으로 ‘-ㅅ-’를 추출해 낼 수 있다.

이상금(2018)은 석독구결의 선어말어미 위치에 분포하는 ‘-ㅅ-’를 확인법과 다른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화엄경소의 석독구결 자료에서 ‘-ㅅ-’를 ‘-ㅅ-’와 비교하여 다룬 그 논의 내용을 살펴보자.

(23)가. 大王下 當ハ 知ロハ 而立 我ニ 今ソ 衰老ソ 身ニ 重疾ヲ 嬰セソ
カ 榮獨ソ 羸頓ソ 死ノ 將ト 今ハ 久ク 不ソ 成リ
カ <화소10:17-19>

- 나. 一切 榮盛ッ1カ 必當兮 衰歇ッホネヲセカ {於}衰歇ッホヒセ 時リ
 +ル入1 復[甲]ル 更ヲ 衆生乙 饒益ル 不(ノ)能リ矣ノヲナ1リ四
 <화소11:12>
- 다. 我1 當ハ 統領ッ3ハ 王ヲ 福樂乙 受セイッホロ乙イ1ッホ11+
 爾セッ1 時+ 菩薩1 {是}リ 念言ノル入乙 作ッナル丁 <화소
 11:11-12>
- 라. {此}リ 藏ヲ+ 住ッホナヒセ 者ヲ1 無盡智慧乙 得ヲホ 普リ 能支
 一切 衆生乙 開悟スリナセヒ | <화소20:04-05>

이상금(2018:19)에서는 (23)의 예문은 화자인 ‘나’가 직접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ㅅ-’가 쓰인 것이라고 보고, 이때 ‘-ㅅ-’는 시간상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말하는 것인데 스스로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말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23나)의 ‘衰歇ッホヒセ 時’를 ‘이미衰歇한 때’로 해석하고 이는 (18가)와 다른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전체적인 문장의 의미에서 화자가 이 사태를 인식하는 시간에 대한 관점으로 파악하면 이는 화자가 현재 이후에 이 사태를 인지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23가)와 (23나)에서 동일한 분포를 보이는 ‘-ㅅ-’는 동일한 기능을 나타내는 형태로 파악해도 무방하다. (23다)의 ‘在ッホナヒセ’의 해석을 ‘앞으로 이藏에서 머무르는 이는 (중략) 중생을 능히 깨치게 한다.’는 앞으로 행동을 예측하는 내용으로서 ‘-ㅅ-’가 결합된 부분을 ‘머무르게 되는’으로 해석할 수 있다. (23라)의 ‘受セイッホ로乙イ1ッホ11+’를 “...받고자 합니다.” 하는 때에’로 해석할 때 앞쪽의 ‘-ㅅ-’와 뒤쪽 ‘-ㅅ-’ 모두를 동일한 기능인 화자가 선행하는 사태나 사건을 현재 이후에 인지하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3다)의 ‘-11+’를 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구문으로 볼 때 ‘-ㅅ-’의 시간 표현 기능은 명확해진다. 가정은 항상 미래 상황을 표현하는 기제이기 때문이다. 형태 각각에 대한 정교한 해석이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다소 소략한 논의로서 화엄경소(華嚴經疏)의 예문 (23)의 문법 형태 ‘-ㅅ-’와 관련하여 모두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정수(2013:188)은 현대국어의 선어말어미 ‘-거-’를 설정하고 이를 화자의 미래 지각을 나타내는 문법 기능으로 파악한 바 있다.³⁰⁾ 이 기능은 석독구결의 문

법 형태 또한 현대국어의 시간 표현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아 시간 표현 문법 형태가 가진 문법 기능의 연속성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3.2. ‘-ㅅ-’와 시간 표현

3.2.1. ‘-ㄴ-’와 ‘-누-’의 변화

박진호(2018:10)은 ‘-ㄴ-’와 ‘-누-’의 변화에 대하여 고대 한국어 시기에 서로 다른 선어말어미 ‘-ㄴ-’와 ‘-누-’가 있었고, 이들은 구결에서 각각 ‘-ㅅ-’와 ‘-ㅈ-’의 형태를 가진 것으로 이들이 어느 시기엔가 하나로 통합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는 김영옥(1999:156)의 ‘-ㄴ-’와 ‘-누-’의 통합에 대한 논의와 동일선상에 있다. 박진호(2018)는 이 통합 현상을 향찰과 이두를 포함하여 논의를 확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석독구결로 표상되는 시기에 ‘-ㅅ-’와 ‘-ㅈ-’가 이미 하나로 통합되었다면 그 의미가 동일하고 표기의 차이는 단지 표기의 보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석독구결 시기에 아직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각각 항상성과 현재시제를 나타내는 기능으로 구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먼저 어말어미 위치에 나타난 ‘-ㅅ-’의 의미와 기능을 확인해 보자.

(24)가. 一一國土_ニ 中_ニ 一一佛_ニ 及_ハ 大衆_ニ ノ 各_々 各_々 各_々 般若
波羅蜜_ト 説_ヒ ハ_ニ 一<구인02:06-07>

나. 각 國土 가운데 있는 하나하나의 부처니 大衆이니 하는 이마다 제각각 般若波羅蜜을 말씀 하시고 있다.

다. 하나하나의 국토에는 한 분 한 분의 부처님과 대중들이 각각 반야바라밀을 설하였으며,

30) 하정수(2013:188)은 {-거-}가 가지는 가능 세계에 대한 미래 지각은 {-거-}와 계열 관계를 이루는 {-느-}와 {-더-}의 현실 세계에 대한 지각과 대비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석독구결에 나타나는 ‘-ㅅ-’를 ‘-ㅈ-’와 의미와 문법 기능으로 계열관계로 파악하는 것과 관련지을 수 있다.

(25)가. 其會^ヒ 方廣^ハ 九百五十里^ニ 大衆^ハ 僉然^キ 而^{シテ} 坐^シ 坐^シ ^ト ^ハ ^ニ ^シ
<구인02:08-09>

나. 그 회의 사방 넓이가 九百五十里였는데 大衆이 그렇게 앉아 있었다.
다. 그 대회가 바야흐로 너비가 950리였는데 대중이 다 그렇게 앉았다.

(26)가. 大寂室^ニ 三昧^ニ 入^リ 緣^ト 思^フ 大光明^ト 放^ツ 三界^ニ
中^ニ 照^ス 照^ス ^ト ^ハ ^ニ ^シ <구인02:11-12>

나. 大寂室三昧에 드신 인연을 생각해서 大光明을 놓아서 三界의 가운데를 비추고 계시며
다. 대적실삼매(大寂室三昧)에 들어 인연을 생각하여 대광명을 놓아 삼계를 비추었다.

(27)가. 乃^チ 他方^ニ 恒河沙^ニ 諸^ニ 佛^ト 國土^ニ 至^リ 至^リ ^ト ^ハ ^ニ ^シ <구인02:13-14>

나. 이에 他方 恒河沙의 모든 佛國土에 이르게 하셨다.
다. 나아가 타방 항하(恒河)의 모래 수와 같이 많은 모든 부처님 국토에 까지 이르렀다.

(28)가. 何^ニ 事^ト 作^ス ^ト ^ハ ^ニ ^シ <구인02:24-25>

나.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 것인가?” 하였으며
다. (금일 여래께서 큰 광명을 놓으시니,) 이는 무슨 일을 하려는 걸까?”

(29)가. 世界^ニ 其^ノ 地^ハ 六種^ニ 震動^ス <구인02:18>

나. 이때에 世界의 그 땅은 六種으로 震動한다.
다. 이 때 세계는 그 땅이 여섯 가지로 진동하였다.

예문 (24-28)은 통사 구조에서 공통적으로 ‘용언 어간+⁻^ト ^ハ ^ニ ^シ’로 분석할 수 있다. 선어말 위치에 나타나는 ‘⁻ ^ハ ^ニ ^シ’의 ‘⁻ ^ニ ^シ’는 높임을 나타내는 요소이거나 상적 기능을 표현하는 보조 동사로 파악할 수 있다. 반면 ‘⁻ ^ハ ^ニ ^シ’는 ‘⁻ ^ト’와 결합된 한 형태인지 또는 독립된 형태인지 판단하기 어

(35)가. 菩薩ニ成佛ス未リットモト時ト菩提ニ以テ煩惱ニ爲シナラズ
<구인15:18-19>

나. 菩薩이成佛하지 않은 때에 菩提를 써 煩惱 삼지만

(30-35)의 예문들은 ‘용언 어간+-ㅅㅅ#NP’의 구조로 분석할 수 있다. 여기에 나타나는 ‘-ㅅㅅ’은 뒤의 명사구(NP)를 수식하는 관형어 기능을 한다. 이때 ‘-ㅅ’을 연결어미 또는 동명사어미에 결합한 속격 기능의 형태로 볼 수 있다. 동명사어미의 기능을 ‘-ㅅㅅ’ 구성 전체로 본다면 ‘ㅅ’는 시간 표현 관련 기능의 요소이다. 이때의 ‘ㅅ’는 완료의 시간 표현과 관련한 동명사어미와 기능이 유사하다. 그러나 이를 나타내는 표기는 주로 ‘-ㅅ’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ㅅ’과 다르게 표기되는 ‘ㅅ’는 다른 기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ㅅ’는 중세국어에서 ‘-느-’로 표상되는 형태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ㅅㅅ’의 ‘-ㅅ-’를 시간 표현 형태와 동명사어미가 결합된 미분화된 형태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 형태 앞에 결합하는 형태는 현대국어의 ‘-건’, ‘-는’, ‘-던’과 같은 화자의 시간 인식을 나타내는 표지 ‘-거-’, ‘-느-’, ‘-더-’의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36)가. 量 無シテ 變ノリトモト大香花ニ雨リテ 香ニ車輪 如シット花ト
<구인02:14-15>

나. 한이 없는 변화하는 大香花를 뿌리되 (그) 香은 車輪 같으며 꽃은

(37)가. 無明習相ニ故シノリモト煩惱ニ除ソニトテ 二諦理ニ窮ス
<구인11:01-02>

나. 無明習相인 까닭으로의 煩惱이니 하는 것을 除하시는 것은 二諦理를 窮하여

(38)가. 一切 報ニ盡ス無極ニ悲ニットカ <구인11:05>

나. 一切 報를 다하고 無極한 慈悲를 하시며

(39)가. 相 無シテ 第一義ト自 無シテ 他作 無シットカ <구인14:24>

나. 相 없는 第一義는 자신[自]이 없고 남이 지음[他作]도 없고 하며,

(40)가. 無刀 無¹ 夫¹ 諦 實¹ 無¹ 寂滅¹ 第一空¹
 ッか<구인15:01-02>

나. 無도 없는 것이어야 諦가 實한 無인 것이라, 寂滅이고 第一空이고 하며

(41)가. 解¹ 心¹ 二 不¹ 見¹
 解¹ 心¹ 二 不¹ 見¹ 見¹ 二 不¹ 見¹ <구인15:04>

나. 이해하는 마음에 둘 아닌 것을 보는 것이라,

(42)가. 五眼¹ 成就¹ 時¹ 見¹ 所¹ 無¹
 五眼¹ 成就¹ 時¹ 見¹ 所¹ 無¹ <구인15:16>

나. 五眼이 成就되신 때에 보시나 볼 바 없으시며,

(43)가. 菩薩¹ 成佛¹ 時¹ 煩惱¹ 以¹ 菩提¹
 菩薩¹ 成佛¹ 時¹ 煩惱¹ 以¹ 菩提¹ <구인15:18-19>

나. 菩薩이 成佛한 때에 煩惱를 써 菩提 삼는다,

앞의 예문과 대조적으로 (36-43)의 예문은 앞 예문과 동일한 통사 구성 앞에 ‘1’이 결합되어 있다. 이 통사 구성은 ‘용언 어간+¹NP’로 나타난 구문이다. 이때 ‘-1-’은 동명사어미 ‘-1’과 형태가 동일하다. ‘1’과 ‘1’은 그 음을 각각 ‘ㄴ/은’과 ‘ㄴ’로 추정할 때 음소 /ㄴ/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 ‘-1 1’은 동일한 형태소를 나타내는 동일한 음소가 연속하여 나타난 형태일 가능성이 있다. 본고에서는 이 ‘-1 1’이 음소 /ㄴ/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형태소(형태)의 증가형(重加形)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하였다.³¹⁾ 음소 /ㄴ/을 가지는 형태소의 증가형은 ‘-는-’이다.³²⁾ 따라서 ‘-1 1’은 형태소 ‘-ㄴ-’의 증가형인 ‘*-ㄴㄴ-’를 나타낸 표기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앞서 논의한 ‘용

31) 문법 형태 {-ㄴ-}의 증가형(重加形)과 그 의미의 중첩에 대한 논의는 서태룡 (1993:513-515)을 참조할 수 있다.
 32) 변용우(2003:56)는 변이 형태의 생성을 두 가지 측면 즉 음운론적 측면과 형태론적 측면에서 살펴야 함을 밝히고 있다. 증가형을 변이형태의 하나로 파악할 때 이 현상은 음운론적 측면과 동일하게 형태론적 측면에서 형태소의 투명성을 유지하려는 언어 보편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나. 이해하는 마음에 둘 아닌 것을 보는 것이라,

(58)가. 幻化_ニ 幻化_ニ 衆生_ニ 見_トフ 名_ヲ 幻諦_ニ ノ ヲ_リカ_ク <구인15:08>

나. 幻化가 幻化의 중생을 보고 일컬어 幻諦라고 하며

(59)가. 幻化_ヲ + ヲ_ツ 幻化_ニ 見_トフ 衆生_ヲ ノ_ヲ 一_ニ [ス_ニ ヲ_ツム] 名_ヲ 幻諦_ニ ノ ヲ_リカ_ク <구인15:08난상>

나. 幻化에서 幻化를 보고 중생이 하는 것을 일컬어 幻諦라고 하며

(44-59)의 구문 15개는 “구역인왕경”에서 선어말어미 위치에 ‘-ト-’가 나타난 것이다. 이들 구문은 ‘~는 NP(또는 계사)’ 관형 구성을 이루며 ‘-ト 1 + 계사’, ‘-ト-+ 선어말어미+ 1’, ‘-ト-+(선어말어미 주로 5)+ 어말어미’의 형태로 나타난다. 구문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통사 구조에서 ‘-ト-’는 완료의 의미 기능을 가지는 동명사어미 앞에 결합한다. 이때 ‘-ト-’는 관형 구성 내부 화자의 시간 인식이 현재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형태는 어말어미 앞에 선행하여 모문 전체에서 화자의 시간 인식이 현재임을 나타내는 문법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42나)와 (52나)의 해석은 완료된 현재 상태의 인식이 과거로 확대되어 해석될 수 있다. 즉 완료 상태에 대한 현재 시간의 화자의 인식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구문들에 나타나는 ‘-ト-’는 현재 시간 인식이라는 동일한 문법 기능을 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는 ‘-ト-’가 ‘-ト-’로 표상되는 형태의 이형태일 가능성과 ‘-ト-’가 ‘-오/우-’를 나타내는 형태와의 통합형 표기했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

(60)가. 是 {如} | ヲ_ツ 是 {如} | ヲ_ツ 汝_ヲ 解_ツム 所_ヲ {如} | ヲ_ツ | <구인11:22-23>

나. 이 같으며 이 같아 너의 解하는 바와 같다.

(60)은 유일한 예로 ‘-ト-’또는 ‘-ト-’가 분포하는 위치에 나타난 ‘-스-’구문이다. 이 구문의 통사 구조는 ‘용언 어간+ -스-+ 1#NP’의 구조를 나타낸다. 김영옥(1993:155)은 이를 ‘ㄴ+오’의 축약형으로 파악하고 ‘오’를 중세국

어 대상 활용의 ‘오’와 대비하였다. 본고에서는 ‘-스-’는 이형태 관계인 ‘-티-’와 ‘-트-’가 결합한 ‘-티르-’ 또는 ‘-트르-’의 축약형으로 파악하고, 후행하는 ‘-르-’의 의미 특성은 화자와 청자에 관한 존재 표시 등 통사적인 의미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자 한다.

- (61) 一切榮盛^ツ刀必當^テ衰歇^ツホ^スヲ^ルセ^ルヲ {於}衰歇^ツホ^スニ^テ時^リナ^ルヲ
 ス^ル復[甲]ヲ更^テ衆生^ニ饒益^ス不(ノ)能^ルハ^スノ^ヲナ^ルヲ^ルニ^テ四 <화소
 11:12-13>
- (62) 悉^テ歡心^ニ法化^スト從^テ使^リイ^フム劫^ニ中^ニ饑饉^ツホ^ス災難^ニホ^ス
 티^ニ時^リナ^ル悉^テ世間^ニ諸^ノ樂具^ニ與^フヲ^ル <화엄17:22-23>
- (63) 是^レ如^シ支^ル是^レ如^シ支^ル善男子^ヲ汝^ヲ說^スヌ^ル所^ニ如^シヲ^ル <금광
 13:22-24>

(61-63)의 예문은 본 논의에서 반증으로 제시될 수 있는 ‘-티-’와 ‘-스/스-’가 계열 관계로 나타나지 않는 통사 구성의 구문이라고 할 수 있다. 모두 ‘-스티-’의 구조체로 나타난다. 이는 앞에서 논의한 ‘용언 어간+-티 #NP’의 형태로 동일한 통사 구조에 ‘-티-’ 대신에 ‘-스-’가 결합한 것으로 파악할 가능성을 보여 준다. 즉 이 구성은 ‘-티-’가 동명사어미의 기능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해야만 다른 구성에서 나타나는 ‘-티-’와 구별될 수 있다. 이때의 ‘-티-’는 동명사어미 ‘-르-’와 같은 구성이다. 즉 ‘-티-’의 기능이 통합되어 ‘-1’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르-’의 기능을 표기한 ‘-르-’에 이끌린 유추 또는 혼효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³³⁾ 그러므로 앞서 논의한 선어말 위치에 나타나는 시간 표현 문법 형태의 계열 관계를 부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는 없다. 특히 예가 3개로 매우 한정적이고 ‘-스트-’와 ‘-스스-’

33) ‘르-’가 동명사어미로 기능하여 후행하는 명사구(NP)와 결합한 통사 구조는 음운적으로 ‘르-’로 나타낼 수 있다. 이를 ‘르-’로 나타내면 ‘르-’, ‘르-’와 관련하여 고대국어 내포문의 시간 표현과 관련한 ‘l’, ‘m’, ‘n’의 대칭적 구조로 미정, 완료, 기정의 기본 의미의 문법 기능으로 분석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화자의 시간 인식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 파악하는 ‘-거-’, ‘-느-’, ‘-더-’와 통사-화용 대응쌍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의 형태는 나타나지 않아 앞의 두 예가 당시에 이미 표기의 보수성을 반영한 화석형일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앞에서 논의한 선어말어미 위치의 시간 표현에 관한 요소가 아니다.

4. 결론

본고에서는 첫째 자토 석독구결 자료인 “구역인왕경”의 경문을 원측의 인왕경소 및 제조본 고려대장경 “구역인왕경”의 경문과 교감을 하고 그 결과를 통해 “구역인왕경”의 경문은 고려대장경 판본보다는 원측의 인왕경소 경문에 더 가깝다고 추정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구역인왕경”의 석독구결을 해독하는 데 있어 원측의 인왕경소를 활용하였다. 실제로 인왕경소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역인왕경”의 석독구결의 해독에서 ‘方_ㅅ’과 ‘方_ㅈ’의 뜻이 상이함을 논의하였다. 또한 구결자 ‘ㅅ’가 사동형 ‘히여’로 전사할 수 있음을 밝혔다. 둘째 “구역인왕경”의 석독구결에 나타난 시간 표현 문법 형태를 구결자 ‘ㅅ’, ‘ㅈ’, ‘ㅊ’, ‘ㅊ’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이들 형태가 중세국어의 시간 표현과 관계되는 문법 형태 ‘-거-’, ‘-ㄴ-’, ‘-누-’, ‘-노-’로 분석될 가능성이 있음을 각각의 구문의 해석과 통사 구조를 분석하여 검토하였다. 논의를 종합하면 “구역인왕경” 석독구결에 나타나는 문법 형태 중 시간 표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ㅅ’, ‘ㅈ’, ‘ㅊ’, ‘ㅊ’를 제시할 수 있었다. 이 표기 형태가 출현하는 구문의 경문과 구결문의 해독을 참조하여 각각 ‘-ㅅ-’와 ‘-ㅈ-’의 문법 기능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ㅅ-’는 화자가 선행 언어 사실을 현재 이후 즉 미래에 지각하는 것을 표현하는 기능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ㅈ-’, ‘-ㅊ-’, ‘-ㅊ-’는 서로 다른 문법 요소가 결합된 형태로서 화자가 선행 언어 표현을 ‘현재’의 사건으로 인식함을 나타내는 문법 기능을 갖고 있었다. 이는 중세국어의 이른바 확인법으로 논의되는 선어말어미 {-거-}와 현재를 나타내는 시상법의 {-ㄴ-}와 관련되는 문법 형태이다. 이 구결자가 나타내는 문법 형태가 직접적으로 {-거-}와 {-ㄴ-}를 사상(寫象)하는지는 앞으로 자

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고는 논의 대상을 “구역인왕경”의 석독구결에 한정하여 시간 표현 문법 형태의 의미와 기능을 분석하였다. 최근 발견된 “자비도량참법”을 포함하여 다른 자토구결 자료와 점토구결 자료에 나타나는 시간 표현 문법 형태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Study on grammatical form of tense in Seokdokgugyol(釋讀口訣)

Ha, Jeongsoo
Dongguk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find and analysis to grammatical tense form in the Seokdokgugyol(釋讀口訣) written in Guyeokinwanggyeong(舊譯仁王經).

First It is to determine the type of letters used Seokdokgugyol(釋讀口訣) characters in this document. We use the Inwanggyeonso(仁王經疏, sutra-interpretation) to analyze the syntax related to the contents of the scriptures. And this character letter was compared with the Tripitaka Koreana. As a result, it was assumed that the text of Guyeokinwanggyeong(舊譯仁王經) was closer to the original text of Inwanggyeonso(仁王經疏, sutra-interpretation) rather than the Tripitaka Koreana version. Therefore In order to decrypt Seokdokgugyol(釋讀口訣) of the sutra tect in Guyeokinwanggyeong(舊譯仁王經), I tried to use the Inwanggyeonso(仁王經疏). In fact, I refer to the contents of Inwanggyeonso(仁王經疏) to discuss the difference between the meaning of ‘方ㅅ’(方s) and ‘方ㅈ’(方?) in the decoding of the Seokdokgugyol(釋讀口訣) in Guyeokinwanggyeong(舊譯仁王經). We discussed the possibility of that the meanings of the two letters are different. In addition, it is proved that gugyol letter ‘ㅅㅅ’ can be transcribed as a causative form ‘ᄃᄃᄃ’(ᄃᄃᄃ).

Second, it analyzed the form of time expressive grammatical expressions in the texts of the Seokdokgugyol(釋讀口訣) written in the Guyeokinwanggyeong(舊譯仁王經). Analyzed grammatical form from the sentences ‘ㅅ’, ‘ㅈ’, ‘ㅊ’ and ‘ㅌ’ And ‘-ㅅ-(-kə-)’ and ‘-ㅈ-(-nλ-)’ respectively. And the function of this grammatical form is examined by analyzing the reading of the sentence. And the analysis of ‘-ㅅ-(-kə-)’ and ‘-ㅈ-(-nλ-), ‘-ㅊ-(-nu-), ‘-ㅌ-(-no-)’ indicates that the speaker recognizes the events of ‘future’ and ‘present’.

Key words : Seokdokgugyol(釋讀口訣), Guyeokinwanggyeong(舊譯仁王經), causative, time expression, grammatical form, tense, future perception, present perception, -ㅅ-(-kə-), -ㅈ-(-nλ-)

참고문헌

□ 기본자료

國譯大藏經編輯部, 『國譯大藏經 經典部 第四卷』, 東方書院, 1928, 7534면.
장경준, 「sktot_2015_07」, 2015, 한글(HWP) 전자과일.

□ 단행본

남풍현, 『국어사를 위한 구결연구』, 1999, 태학사, 576면.
백진순·옴김, 『한글본 한국불교전서 신라1 인왕경소』, 2010, 동국대학교 출판부, 800면.
장경준, 오민석, 문현수, 허인영, 『『유가사지론』 권20의 석독구결 역주』, 역락, 2015, 416면.
장경준,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의 해독 방법 연구』, 태학사, 472면.
정암, 남권희, 박성실 외, 『<지심귀명례-한국의 불복장> 특별전』, 수덕사 근역성보관, 2004, 301면.
한국불교전서편찬위원회 편, 『한국불교전서 1책 신라』, 1979, 동국대학교 출판부, 843면.
황선엽 외, 『석독구결사전』, 박문사, 2009, 777면.

□ 논문

강인구, 「서산문수사 금동여래좌상복장유물」, 『미술자료』 18, 국립박물관, 1975, 1-18면.
김두찬, 「구역인왕경 구결 해독 시고」, 『구결연구』 2, 구결학회, 1997, 161-241면.
김성주, 「석독구결 자료 기립사본 『자비도량참법』의 원문 검토와 특징적인 현토 양상 고찰」, 『구결연구』 37, 구결학회, 2016, 39-66면.
김영만, 「구역인왕경의 석독표기 소고(1)」, 『국어학 신연구』, 탑출판사, 1986, 836-847면.
김영욱, 「구역인왕경 구결의 사상과 서법 선어말어미」, 『구결연구』 5, 구결학회, 1999, 147-164면.
남성우·정재영, 「구역인왕경 석독구결의 표기법과 한글 전사」, 『구결연구』 3, 구결학회, 1998, 195-251면.
남풍현, 「구역인왕경의 구결에 대하여」, 『국어학 신연구』, 탑출판사, 1986, 827-835면.
남풍현·심재기, 「구역인왕경의 구결연구(기1)」, 『동약학』 6,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

- 소, 1976, 1-68면.
- 박진호, 「구역인왕경 구결의 구문론적 양상」, 『구결연구』 5, 구결학회, 1999, 189-199면.
- 박진호, 「선어말어미 ‘-ㄴ-’와 ‘-누-’에 대한 문법사적 고찰: 차자표기 자료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제54회 학술대회발표집』, 구결학회, 2018, 1-11면.
- 백두현, 「구역인왕경 석독구결의 경어법」, 『구결연구』 5, 구결학회, 1999, 127-145면.
- 백진순, 「원측(圓測)의 “인왕경소(仁王經疏)”에 나타난 경전 해석의 원리와 방법」, 『불교학보』 56, 불교학회, 2010, 143-164면.
- 변용우, 「음운 기술에 있어서 비음운정보의 처리 문제」, 『국제언어문학』 제8호, 국제언어문학회, 2003, 55-75면.
- 서태룡, 「문법형태소의 증가와 기본의미의 증가」,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연구회 편, 『국어사 자료와 국어학의 연구』, 문학과 지성사, 1993, 507-527면.
- 심재기, 「구역인왕경상 구결에 대하여」, 『미술자료』 18, 국립박물관, 1975, 19-35면.
- 이동립, 「구역인왕경의 구결해독을 위하여」, 『논문집』 21, 동국대학교 대학원, 1982, 137-186면.
- 이상금, 「《화엄경소(華嚴經疏)》 권 35에 나타난 ‘-ㄴ-’와 ‘-ㄴ-’에 대하여」, 『제54회 학술대회발표집』, 구결학회, 2018, 별지 1-22면.
- 이용, 「‘-乙’에 대하여」, 『구결연구』 2, 구결학회, 1997, 131-160면.
- 장경준, 「석독구결의 구결자 ‘ㅅ’과 ‘ㅆ’에 대하여」, 『국어학』 47, 국어학회, 2006, 265-286면.
- 장경준, 「석독구결 자료의 주석말뭉치 구축에 대하여」, 『한국학연구』 46,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3, 167-195면.
- 장윤희, 「구역인왕경 구결의 종결어미」, 『구결연구』 5, 구결학회, 1999, 165-187면.
- 하정수, 「국어 어미 {-거-}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13, 208면.
- 하정수, 「“舊譯仁王經上”釋讀口訣의 解讀에 관한 管見」, 『제48회 학술대회발표집』, 구결학회, 2014, 133-147면.
- 황선엽, 「구역인왕경(상)의 역주에 대하여」, 『제46회 학술대회발표집』, 구결학회, 2013, 3-40면.

이 논문은 2018년 4월 8일 접수되어 4월 20일까지 심사받아 4월 23일 게재 확정됨.